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5호 【루계 제25794호】 주체106(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따쓰통신사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따쓰통신사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동지에게 11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따쓰통신사대표단 단장인 쎄르게이 미하일로브 총사장이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남아프리카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2돐에 즈음하여 10일 남아프리카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불패의 위력떨치는 조선로동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 《ㅌ.ㄷ》결성 91돐에 즈음하여 메히꼬, 방글라데슈, 로씨야, 마쟈르, 슬로베니아에서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기간에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강연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신 조선의 당과 인민은 미제와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펜니지부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의 불패성의 요인은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령도자를 최고수위에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가고있다, 김정은령도자이시야말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시다고 찬양하였다.

로씨야 모스크바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70여년간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세기 말엽 사회주의위업에 엄중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사회주의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나감으로써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었다.

조선로동당이 오늘과 같은 강위력한 당으로 될수 있은것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마쟈르로동당 위원장은 존경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유훈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은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조국인민들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력사적인 이날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와 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 숭고한 덕망으로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위업을 굳건히 이어가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당건설을 혁명투쟁의 근본문제로 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ㅌ.ㄷ》의 결성으로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항일의 20성상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져오시였습니다.

이렇듯 깊고도 억센 력사적뿌리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나라가 해방된 첫 시기에 벌써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고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백전백승만을 아로새겨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제시하시여 조선로동당이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적당, 김일성주의당으로서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앞에 혁명적당건설과 당활동의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여 력사의 전철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여 백두의 혈통을 억세게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을 과시하시고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제시하시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곧바로 나아갈 불변의 진로를 명시하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우리의 핵무기가 장기간에 걸친 미제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의 운명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피어린 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인류에게 참혹한 재앙을 들씌우려는 폭제의 핵구름을 몰아내고 인민들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자주적인 행복한 삶을 누려갈수 있게 하는 정의의 보검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고 미제의 핵공갈위협을 종식시키며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원칙적립장과 혁명적대응전략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인민을 하늘로 떠받드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모습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대가정을 한품에 안으시고 눈비와 바람도 다 막아주시며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의 오늘을 지켜주시고 마음속 소박한 소원과 리상까지도 친히 헤아려주시기에 오늘 조국땅 방방곡곡에서는 인민들의 감사에 넘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습니다.

하기에 해외에 사는 재중동포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이라고 부르며 위대한 그 품에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스스럼없이 안겨들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오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천출위인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조국을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광범한 재중조선인들을 조직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애국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섬으로써 온 겨레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오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조국의 하늘가를 우러르며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소원은 오직 하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뿐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재중조선인애국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106(2017)년 10월 10일 중국 심양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3대혁명의 기치높이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친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있는 추진력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위력한 무기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날이 갈수록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수많은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와야 하겠습니다.》

강서약수공장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근 현지지도표식비를 정중히 건립하고 혁명사적교양실을 훌륭히 개건한데 기초하여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6월 공장을 찾으시여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1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함으로써 약수의 생산성과 질을 훨씬 높이고 지난 8월말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받들고 새로 꾸린 원격강의실운영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였으며 수천㎡의 건물외벽타일붙이기와 나무심기, 문화후생시설 및 후방기지꾸리기를 힘있게 내밀어 공장의 면모를 당의 령도업적단위답게 일신시켰다.

봉화비누공장 당조직에서는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 등 교양거점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안고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및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였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세수비누향료를 국내산 향료로 보장하면서 10여가지의 비누제품을 질좋게 생산함으로써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자체의 힘으로 생산건물과 공공건물들을 훌륭히 건설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으며 군중문화예술활동,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등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라선해성옷공장 당조직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여 그들을 충정의 인간, 신념의 인간으로 키워나갔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라선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바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감사를 여러차례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공장에서는 수많은 창의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훨씬 높이였다.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면서 지난 10년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여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생산건물을 개건하고 구내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부유선광법에 의한 생산공정을 청화제련공정으로 바꾸었으며 갱건설과 굴진을 선행하여 수만t의 광량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두배이상 늘임으로써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금바위광산과 평양체육기자재공장, 동대원구역연료사업소 등 많은 단위의 당조직들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대중의 열의를 3대혁명의 위력으로 총폭발시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김향란

순천메기공장 준공식 진행

순천메기공장이 새로 건설되여 준공하였다.

공장에는 종합지령실, 알깨우기 및 새끼메기기르기호동, 실내비육호동과 10여개의 야외박막못들, 가열장 등이 갖추어져있다.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여있는 공장에서는 현재 메기와 열대붕어, 칠갑상어를 비롯한 수십만마리의 물고기들이 자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건설된 순천메기공장 준공식이 11일에 진행되였다.

준공식에는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위원장 김두일동지,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강형봉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공장종업원들, 건설자들, 순천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평안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김두일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한평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도처에 현대적인 메기공장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여 메기양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순천지구에 메기공장을 일떠세울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뜻을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건설자들이 돌격전을 벌려 방대한 기초굴착공사를 와닥닥 해제끼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건설속도를 높여나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안의 시, 군녀맹원들과 많은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순천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나라의 양어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건물과 설비들을 애호관리하고 선진과학기술과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받아들여 메기풍년을 안아와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인민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메기공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막장마다에 타오르는 위훈창조의 불길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멸적의 의지안고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수천척지하막장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자력자강의 불길높이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전력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각지 탄광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떠받들려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석탄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은 어렵고 방대하다.

하지만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구현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전력생산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석탄공업성 일군들은 화력발전소들에 질좋은 석탄을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한 전투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는것과 함께 들끓는 현장들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탄부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각지 탄광련합기업소와 탄광들의 당, 행정일군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일군들은 정막장들에 들어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높은 석탄생산성과를 이룩하려는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힘찬 투쟁은 그대로 생산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올해전투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화력발전소들에 많은 석탄을 보내주고있다.

특히 남덕청년탄광, 인포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상순에 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였다.

순천지구의 2.8직동청년탄광과 령대탄광, 덕천지구의 제남탄광과 덕성탄광, 개천지구의 조양탄광, 득장지구의 득장청년탄광, 강동지구의 흑령탄광 일군들과 탄부들도 막장마다에서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고있다.

이밖에 화력탄보장을 맡은 여러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자기들이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영민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드높이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부령발전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배무이전투에서 혁신
항만수상운수관리국 신의주선박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강하천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짐배를 많이 무어내야 합니다.》

미제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필승의 신심드높이 신의주선박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배무이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김인철지배인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공장을 잘 꾸리고 배를 더 많이 무어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자체로 제작한 10여대의 각종 기중기들과 여러가지 제관설비들, 배수리에 리용되는 배올림대에 대한 정상관리운영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각종 배들을 신속히 무어내기 위한 전투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공장일군들은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배무이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설비들을 창안제작하는 한편 현도공정의 흐름선화를 실현하여 배무이의 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높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배무이전투에 참가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맡겨진 전투과제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260t급짐배를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적은 원가를 들여 많은 리득을 볼수 있는 실리있는 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종전과 같은 자재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를수 있는 각종 짐배들을 무어내기 위한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의 열의에 떠받들려 올해에만도 공장에서는 각종 짐배들은 물론 준첩선과 100t급뜬도크를 무어 압록강에 띄우는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공장에서는 오래전에 무어놓은 낡은 진수대를 새롭게 개조하여 크기와 무게, 일기조건에 관계없이 배를 무어띄울수 있는 확고한 토대도 마련하였다.

현재 이들은 종상가대, 횡상가대, 수리선로 등을 정비하여 많은 배들을 수리할수 있는 상가기지를 꾸려놓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김용일국장을 비롯한 항만수상운수관리국 일군들도 배무이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신의주선박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은 짐배를 많이 무어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면서 높이 세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학생들은 우리 당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조선로동당의 아들딸이며 나의 아들딸입니다. 김 정 은

무궁토록 빛나라, 위대한 사랑과 의리의 력사여!

만세!-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양혁명자유가족학원(당시) 개원식에 참석하시기 위해 주석단에 나서시자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온 민족이 우러르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강도 일제와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의 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내오도록 해주신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개원식에 나오시였으니 어찌 개원식참가자들의 가슴이 세찬 격정으로 끓어번지지 않을수 있으랴.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자리에는 혁명적지조를 굳게 지켜 영용적으로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가의 유자녀들이 모였다고, 여러분은 우리 민족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다가 해방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희생되였다. 그들은 희생되면서 자기들은 비록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보지 못하지만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 자식들을 공부시켜 인민의 훌륭한 충복이 되도록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국에 개선하자 곧 혁명렬사의 유자녀들을 찾았으며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이 학원을 세웠다. 나는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여러분이 우리 전체 인민이 기대하는 새 조선의 씩씩하고도 새로운 민족간부가 될것을 축원한다. …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정녕 그날에 울려퍼진 만세의 함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결한 혁명적의리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의 세찬 분출이였으며 열화같은 그 사랑과 의리에 떠받들려어 우리 혁명은 언제나 빛나는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폭발이였다.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은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주체36(1947)년 10월 12일이였다.

70년!

흐르는 세월은 모든것을 망각속에 묻어버린다고 하지만 어찌하여 우리 인민은 오늘까지도 그날에 울려퍼지던 격정의 함성을 마음속에 늘 안고사는것인가.

그것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이 걸어온 70년의 력사가 바로 숭고한 동지애를 지니시고 혁명가유자녀들이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따뜻이 보살피며 이끌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열화같은 사랑의 력사, 혁명적의리의 력사이기때문이다.

하기에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0돐이 되는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가유자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새 세대들로 억세게 키워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들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태여나고 강화발전되여온 김일성, 김정일혁명학원이며 선군혁명의 핵심골간육성기지입니다.》

조선혁명은 륜메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길을 헤쳐온 성스러운 위업이다.

멀고도 험난한 시련의 고비를 무수히 넘고헤쳐온 혁명의 길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남기고 먼저 떠나간 혁명가들은 그 얼마이런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날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혁명전우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추억하시며 눈굽을 적시군 하시였다.

20년만에 찾으신 그리운 만경대고향집에서의 첫날 밤에도, 해방된 조국땅에 첫눈이 내리던 그밤에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희생된 전우들생각으로 밤을 지새우시였다.

혁명의 길에서 함께 싸우다 희생된 전우들의 부탁을 언제나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계시였기에 해방의 감격이 조국강산을 진감하던 그 나날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그들의 소원부터 풀어주어야 하겠다고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해방직후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과업이 나섰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자녀들을 찾는 사업을 잠시도 미룰수 없는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전국각지에 투사들을 파견하시고 지방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도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세상천지를 다 뒤져서라도 우리 유자녀들을 꼭 찾아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숭고한 뜻이 있었기에 부모를 잃고 국내와 만주광야에 뿔뿔이 흩어져있던 혁명가유자녀들은 조국의 품,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기였다.

하루빨리 유자녀들에게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몸소 학원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여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학원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체36(1947)년 10월 12일 정양혁명자유가족학원창립이 마침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학원개원식이 있은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축하연설을 하면서 학생들을 내려다보니 그들의 부모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와 어쩔수 없었다고 하시며 그 학생들은 부모를 잃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불쌍하게 자랐다고, 우리가 유자녀들의 부모가 되여 그들을 잘 키우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의 창립, 정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가유자녀교육사상과 혁명적의리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우리 혁명의 계승자들을 키우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학원이 개원된 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원아들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원을 찾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학원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학원을 유자녀교육의 전당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나라의 재부도 아낌없이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그 어디에 비길수 있으랴.

학원이 걸어온 력사의 갈피마다에 새겨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해방의 기쁨이 온 강산에 차넘치던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처럼 그리던 일가친척들을 찾으시기 전에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들의 자녀들부터 찾으시였고 만경대의 푸른 언덕에 그들을 위한 배움의 전당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부모잃은 원아들이 수령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늘 뵈옵고싶어하는 소원을 헤아리시여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위대한 수령님과 만경대혁명학원에 높이 모시도록 하신 김정숙동지.

원아들이 물같이를 하여 배를 앓을수 있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찬물을 먹이지 말고 꼭 끓인 물을 먹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신 사실, 원아들의 나이와 식성에 맞게 식사계획료를 만들도록 하신 사연, 밀리 떨어져있는 어버이를 대신하여 병원에 찾아오신 이야기…

이런 뜨거운 사랑속에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혁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성장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중요한 초소들에서 혁심적역할을 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수놓으신 혁명적의리의 세계는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련련히 이어지게 되였다.

주체86(1997)년 1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은 오늘도 유자녀들뿐아니라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꿋꿋이 이어나가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였기에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50돐이 되는 뜻깊은 새해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에 지복한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

만경대혁명학원은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나갈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이며 주체의 혁명전통계승의 믿음직한 기지이라고, 만경대혁명학원은 혁명의 대를 잇고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핵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원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력사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60돐 행사참가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6(1967)년 10월 창립 20돐을 맞은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 및 졸업생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혁명가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를 육성록음으로 청취하도록 하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수령님의 뜻대로 혁명의 핵심골간들을 훌륭히 키워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세워주신 위대한 사랑과 의리의 력사는 오늘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맞이한 주체101(2012)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원아들의 뺨같게 상기된 얼굴들도 어루만져주시고 추운 날씨인데 장갑을 왜 끼지 않았는가, 손이 시리지 않은가 다정히 물어주시며 따뜻이 품어주실 때 이 나라 천만군민은 이 땅에 영원히 흐르는 위대한 사랑과 의리의 력사를 뜨겁게 체험하였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첫해에 온 나라 천만군민의 축복속에 창립 65돐을 맞이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을 위해 경축대회도 마련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신분, 주체102(2013)년 2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만경대혁명학원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심으로써 혁명가유자녀교육교양사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도록 하여주신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련과 난관도 많았던 진국의 초행길에서 혁명학원을 세워주시고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 혁명가유자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나라의 억군으로 키워 선군혁명의 명맥,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가도록 하여주신 백두산위인들께 가장 숭고한 정의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가유자녀들의 영원한 친어버이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혁명가유자녀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줄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뜻깊은 그날 학원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접보고를 올리는 일군의 손을 잡아주시며 설명절을 맞는 동무들을 축하한다고,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올해 설명절은 아버지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 자신께서 원아들의 부모가 되여 명절을 함께 쇠야지 누가 쇠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력사에는 절세의 위인들과 천만군민의 정과 의리, 사랑과 보답의 완계를 보여주는 수많은 기념사진들이 새겨져있다.

그 많고많은 화폭들가운데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과 찍으신 기념사진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가유자녀들의 영원한 친어버이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혁명가유자녀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줄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뜻깊은 그날 학원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접보고를 올리는 일군의 손을 잡아주시며 설명절을 맞는 동무들을 축하한다고,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올해 설명절은 아버지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 자신께서 원아들의 부모가 되여 명절을 함께 쇠야지 누가 쇠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구내에 들어서니 마치 고향집뜨락에 들어선것 같이 저도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며 원아들에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를 뵙게 된 원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그러는 원아들을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며 손을 들어 답례하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먼저 기념사진부터 찍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렬 앞줄에 있던 한 학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춥지 않은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격정속에 발을 동동 구르고있는 다른 한 학생의 손을 잡으시고 울지 말고 사진을 찍자고, 울면 사진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볼도 비벼주시였다.

추운 날씨인데 왜 장갑을 끼지 않았는가, 귀중한 원아들인데 손발이 얼면 되겠는가고 거듭 걱정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의 손을 잡아 따뜻이 녹여주시였다.

학생들과 함께 있으니 수령님과 장군님생각이 더 간절해진다고 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어버이의 크나큰 은정에 두볼로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던 원아들, 감사의 정에 휩싸여 마음속으로 뜨거운것을 삼키던 일군들…

사진촬영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끝없는 감격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열병식훈련에 나가있는 학생들도 오늘 사진을 찍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의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들이 다 기념촬영에 참가했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자신께서는 열병식에 동원된 원아들을 위해 래일 훈련장에 나가 사진을 찍어주려고 생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사랑의 화폭이였다.

정녕 그것은 친어버이의 품에 안긴 아들딸들의 행복을 담은 세상에 둘도 없는 크나큰 가족사진이 아니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오신 귀중한 나라의 보배들인 우리 원아들에게 대해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앞에서 온 나라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흐르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명맥은 굳건히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최 유 일

주체혁명의 핵심골간을 키우시는 나날에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도록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만경대혁명학원이 훌륭한 학원으로 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명절과 기념일같은 때가 되면 제일먼저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을 생각하시고 설명절때에는 학원학생들이 부모가 없어 섭섭해한다고 하시면서 학원부터 찾으시여 그들을 혁명의 골간으로 키우시기 위해 크나큰 관심을 돌리고계신다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치밀어오르는것을 어쩌할수 없었다. 부모없는 원아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그처럼 마음쓰시는 절세의 위인들의 심중이 어려와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골간으로 키우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기둥감으로 훌륭하게 키울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이곳 일군들이 숭고한 사명감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한 귀중한 지침이였다.

《만경대혁명학원용》

주체86(1997)년 1월 1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제대로 보여주는가고 물으시였다.

학원의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새로나오는 영화를 보여준다고 말씀올리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자식들을 남기고 먼저 떠나간 혁명가들은 그 얼마이런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날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혁명전우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추억하시며 눈굽을 적시군 하시였다.

20년만에 찾으신 그리운 만경대고향집에서의 첫날 밤에도, 해방된 조국땅에 첫눈이 내리던 그밤에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희생된 전우들생각으로 밤을 지새우시였다.

혁명의 길에서 함께 싸우다 희생된 전우들의 부탁을 언제나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계시였기에 해방의 감격이 조국강산을 진감하던 그 나날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그들의 소원부터 풀어주어야 하겠다고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해방직후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과업이 나섰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자녀들을 찾는 사업을 잠시도 미룰수 없는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전국각지에 투사들을 파견하시고 지방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도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세상천지를 다 뒤져서라도 우리 유자녀들을 꼭 찾아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숭고한 뜻이 있었기에 부모를 잃고 국내와 만주광야에 뿔뿔이 흩어져있던 혁명가유자녀들은 조국의 품,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기였다.

하루빨리 유자녀들에게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몸소 학원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여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학원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체36(1947)년 10월 12일 정양혁명자유가족학원창립이 마침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학원개원식이 있은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축하연설을 하면서 학생들을 내려다보니 그들의 부모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와 어쩔수 없었다고 하시며 그 학생들은 부모를 잃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불쌍하게 자랐다고, 우리가 유자녀들의 부모가 되여 그들을 잘 키우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의 창립, 정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가유자녀교육사상과 혁명적의리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우리 혁명의 계승자들을 키우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학원이 개원된 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원아들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원을 찾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학원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학원을 유자녀교육의 전당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나라의 재부도 아낌없이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그 어디에 비길수 있으랴.

학원이 걸어온 력사의 갈피마다에 새겨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해방의 기쁨이 온 강산에 차넘치던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처럼 그리던 일가친척들을 찾으시기 전에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들의 자녀들부터 찾으시였고 만경대의 푸른 언덕에 그들을 위한 배움의 전당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부모잃은 원아들이 수령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늘 뵈옵고싶어하는 소원을 헤아리시여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위대한 수령님과 만경대혁명학원에 높이 모시도록 하신 김정숙동지.

원아들이 물같이를 하여 배를 앓을수 있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찬물을 먹이지 말고 꼭 끓인 물을 먹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신 사실, 원아들의 나이와 식성에 맞게 식사계획료를 만들도록 하신 사연, 밀리 떨어져있는 어버이를 대신하여 병원에 찾아오신 이야기…

이런 뜨거운 사랑속에 우리 혁명가유자녀들은 혁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성장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중요한 초소들에서 혁심적역할을 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수놓으신 혁명적의리의 세계는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련련히 이어지게 되였다.

주체86(1997)년 1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은 오늘도 유자녀들뿐아니라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꿋꿋이 이어나가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였기에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50돐이 되는 뜻깊은 새해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에 지복한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

만경대혁명학원은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나갈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이며 주체의 혁명전통계승의 믿음직한 기지이라고, 만경대혁명학원은 혁명의 대를 잇고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핵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원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력사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60돐 행사참가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6(1967)년 10월 창립 20돐을 맞은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 및 졸업생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혁명가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를 육성록음으로 청취하도록 하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수령님의 뜻대로 혁명의 핵심골간들을 훌륭히 키워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세워주신 위대한 사랑과 의리의 력사는 오늘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맞이한 주체101(2012)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원아들의 뺨같게 상기된 얼굴들도 어루만져주시고 추운 날씨인데 장갑을 왜 끼지 않았는가, 손이 시리지 않은가 다정히 물어주시며 따뜻이 품어주실 때 이 나라 천만군민은 이 땅에 영원히 흐르는 위대한 사랑과 의리의 력사를 뜨겁게 체험하였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첫해에 온 나라 천만군민의 축복속에 창립 65돐을 맞이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을 위해 경축대회도 마련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신분, 주체102(2013)년 2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만경대혁명학원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심으로써 혁명가유자녀교육교양사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도록 하여주신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련과 난관도 많았던 진국의 초행길에서 혁명학원을 세워주시고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 혁명가유자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나라의 억군으로 키워 선군혁명의 명맥,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가도록 하여주신 백두산위인들께 가장 숭고한 정의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가유자녀들의 영원한 친어버이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혁명가유자녀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줄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뜻깊은 그날 학원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접보고를 올리는 일군의 손을 잡아주시며 설명절을 맞는 동무들을 축하한다고,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올해 설명절은 아버지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 자신께서 원아들의 부모가 되여 명절을 함께 쇠야지 누가 쇠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구내에 들어서니 마치 고향집뜨락에 들어선것 같이 저도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며 원아들에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를 뵙게 된 원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그러는 원아들을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며 손을 들어 답례하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먼저 기념사진부터 찍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렬 앞줄에 있던 한 학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춥지 않은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격정속에 발을 동동 구르고있는 다른 한 학생의 손을 잡으시고 울지 말고 사진을 찍자고, 울면 사진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볼도 비벼주시였다.

추운 날씨인데 왜 장갑을 끼지 않았는가, 귀중한 원아들인데 손발이 얼면 되겠는가고 거듭 걱정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의 손을 잡아 따뜻이 녹여주시였다.

학생들과 함께 있으니 수령님과 장군님생각이 더 간절해진다고 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어버이의 크나큰 은정에 두볼로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던 원아들, 감사의 정에 휩싸여 마음속으로 뜨거운것을 삼키던 일군들…

사진촬영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끝없는 감격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열병식훈련에 나가있는 학생들도 오늘 사진을 찍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의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들이 다 기념촬영에 참가했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자신께서는 열병식에 동원된 원아들을 위해 래일 훈련장에 나가 사진을 찍어주려고 생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사랑의 화폭이였다.

정녕 그것은 친어버이의 품에 안긴 아들딸들의 행복을 담은 세상에 둘도 없는 크나큰 가족사진이 아니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오신 귀중한 나라의 보배들인 우리 원아들에게 대해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앞에서 온 나라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흐르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명맥은 굳건히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최 유 일

원아들과 찍으신 사랑의 기념사진

김 영 남 동 지 가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캄팔라

우 간 다 공 화 국 대 통 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각하

나는 우간다독립 5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10월 9일 평 양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절세위인들의 당건설업적에 대한 연구발표모임, 해설담화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 생산현장에 내려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백두산위인들의 당건설업적을 깊이있게 해설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청년광구에 나간 한 일군은 해설모임을 통하여 주체혁의 혁명적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에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하였다. 그는 올해에 시대를 격동시키며 다제단으로 일어난 특대사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로숙하고 세련된 당,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실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갈 결의드높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심 운 섭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전위투사들의 대오 힘차게 나아간다.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백두전구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 세차게 타오른다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평양속도창조자들의 위훈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평양시련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지난 9월 28일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평양시련대가 맡은 철길로반에서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철길공사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이 혜산시로부터 삼지연못가로 향한 철길로반에서 작업철길부설공사를 전부 끝낸것이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화선의 기관차가 되어 달려온 장철련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터치는 만세의 우렁찬 함성은 승리의 기적소리마냥 평양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백두의 천연수림과 협곡을 꿰지르며 형성하는 철길로반공사로 치렬하던 격전의 화폭들을 지금은 볼수 없다. 하지만 이곳 련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함성드높이 철다리와 크고작은 콩크리트구조물들, 수력발전소언제마냥 협곡을 가로질러 뻗어간 철길로반이며 다스려진 삼 등에서 우리는 격렬한 투쟁의 그 나날을 그려본다.

《자연과의 투쟁은 간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양속도창조자라는 남다른 자각이 있었기에 우리는 기어이 승리자가 되였습니다.》

불같은 격전의 날들을 가슴뜨겁게 회억하며 장철련대장이 한 이야기이다.

평양시련대가 다른 단위의 2배에 달하는 철길로반구간을 맡아안고 이곳으로 달려온것은 두해전이였다.

련대가 맡은 구간에는 여러개의 협곡들과 산골짜기, 얼어붙은 땅이 태반이였다. 부사층을 들어내고 날라다 쌓아야 할 막돌과 혼석의 운반량만 해도 70여만㎥에 달하였다.

방대한 공사량에 비해볼 때 건설력량과 기계화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강추위로 하여 공사를 마음먹은대로 내밀수도 없었다. 이러저러한 공사조건을 따지면서 맥을 놓는다면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킬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전해진 평양시당위원회 협의회소식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달구어주었다.

삼지연군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돌파구로 되는 철길건설에서 평양속도창조자들이 앞장에 서자. 바로 이것이 협의회의 결정이였다.

전투장 어디서나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깊은 산골짜기와 천연수림을 극복하며 수십리구간의 철길로반을 한m한m 열어나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그중에서도 지난 겨울에 진행된 근 20m높이의 로반형성공사는 그야말로 어려웠다. 해토가 되는 시기에 건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할것을 토론해보았으나 공사기일이 부족하였다.

그때 련대장이 대오앞에 나섰다.

《동무들, 이만한 난관앞에 물러설수 없다. 결사전 앞으로!》

그의 뒤를 따라 돌격대원들은 허리치는 생눈길을 헤치고 언땅을 한정한정 뜯어내며 작업도로를 형성해나갔다.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와의 싸움은 간고하였다. 자동차와 굴착기들도 제대로 움직일수 없었다.

허나 이들은 불뭉치를 들고 자동차의 연유를 녹이였고 굴착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기계수단을 대수 없는 곳에서도 돌격대원들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손에 장알이 박히도록 함마와 정대로 언땅과의 싸움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을 가슴마다에 만장약하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는 투쟁기풍으로 결사전에 나섰다.

겨울철 못지 않게 여름철에도 치렬한 전투가 계속되였다. 3천여m의 철길로반을 형성할 때였다. 다른 단위가 맡아 수행하게 되어있던 이 구간은 진펄이 얼어붙은 동토대와도 같았다.

한m의 겉층을 들어내면 뙤약볕에 순식간에 진펄로 변하여 륜전기재들과 굴착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었다. 하지만 백두전구에 승리의 기적소리를 남먼저 울리려는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어 막돌과 혼석을 져나른 돌격대원들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누가 지휘관이고 대원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열어제낀 돌격로를 따라 륜전기재들이 용을 쓰며 철길로반을 다져나갔다.

어느 전투장에서나 평양속도창조자들의 위훈은 높이 발휘되였다. 그 나날에 얼마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수놓아졌던가.

돌격대원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흐르는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선자리에서 식사하고 모두가 또다시 전투에 들어갔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에서 경사면을 따라 흙마대를 지고 오르자니 몸이 땅속으로 찾아드는듯 하였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공사계획을 우리는 200%로 수행하였다.》

《온통 부사층으로 뒤덮인 여기서는 막돌이 천금처럼 귀중하다. 그래서 지원물자로 막돌을 실고왔으면 좋겠다는것을 적은 편지를 기업소일군들에게 보낼 생각도 하였다. 하지만 자체로 백수십리 떨어진 곳에서 끝내 막돌원천을 찾아냈다.》…

련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렇게 결사적인 전투를 벌리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100여차에 걸쳐 연 수천명의 로력과 수십대의 중기계들을 백두전구에 보내주었다. 이 나날에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솜씨있는 휘틀조립공, 미장공이 되였던 이야기며 시안의 기관, 기업소일군들이 철길로반을 손금보듯 알게 되였다는 일화들도 생겨났다.

하여 평양시련대는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적으로 여러차례나 앞선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련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렇게 당앞에 결의한 맹세를 결사관철하였다. 그들의 투쟁위훈은 백두전구에 울려퍼질 승리의 기적소리와 더불어 길이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다.

발전소를 일떠세우던 그때처럼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갈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의 전렬에서 기발을 들고 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청춘들이 발휘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당중앙결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정신이며 오늘의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공격적인 혁명정신입니다.》

려단앞에는 답사자들을 위한 숙박, 상업봉사, 문화오락시설들과 려관, 살림집들을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건설하여 삼지연군을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가장 어렵고 긴장한 전투과제는 삼지연 읍지구 하부구조공사이다. 먼저 하부구조공사를 다그쳐야 건물건설을 따라세울수 있기때문이다.

방대한 하부구조공사를 앞두고 지난 4월 자강도련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1만 수천개의 흄관을 생산하여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련이어 평안남도련대가 하부구조공사에 먼저 진입하여 기세를 올렸다. 련대장, 정치부장, 참모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선 전투장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이 벌어져 말그대로 백열전을 이루었다.

함경남도련대가 긴급기동하여 현지에 전개되고 평양시, 함경북도, 평안북도련대들이 자기 전투위치를 차지하였다.

량강도련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철근가공을 자체로 하면서 뽐프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하부구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세멘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 드넓은 지역에 전개되여있는 건설장마다에서 요구하는것은 세멘트이지만 수송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려단 려단장의 가슴에서는 불이 이는것만 같았다.

하부구조공사를 올해중에 결속하여야 다음해에 많은 건축물들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그는 운수기동련대 정치부장을 만났다.

《운수기동련대가 한몫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는 백두산영웅청년신화창조자가 아닙니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건설할 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일판을 벌리겠습니다.》

운수기동련대에 비상전투명령이 떨어졌다.

전화의 50년대를 방불케 하는 격렬한 수송전투가 벌어졌다. 자동차운전사들은 낮에는 포태, 무봉지구로 달려 혼석수송을 하고 밤에는 혜산시에 나가 세멘트수송전투를 벌리였다.

두눈은 충혈되고 입술은 부르텄어도 운전사들은 자기들의 역할에 공사속도가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증송의 동음을 더욱 높이 울렸다.

려단지휘부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삼지연군소재지 기본도로주변 하부구조공사를 끝내며 련속적인 공격전을 벌릴것을 모든 련대들에 호소하였다.

이에 화답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청춘의 용맹과 기상을 떨치며 백두산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던 그 나날처럼.

불같은 애국심이 낳은 결실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마감건재생산기지를 돌아보고

완공의 날을 눈앞에 둔 철길건설장에서는 지금 철도역사들의 내부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백두의 천연수림을 배경으로 한폭의 그림처럼 훌륭하게 일떠선 삼지연청년역을 찾았다.

건축미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꾸려진 역사의 외부와 내부도 훌륭하였지만 더우기 눈길을 끄는것은 삼지연군에 흔한 부사로 여러가지 마감건재들을 만들어 장식한 기단들과 벽면들이였다.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자체로 만들어낸 10여종에 근 70가지의 다양한 색갈과 모양의 마감건재들에 대한 호평은 대단하고 온 려단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누구나 새로 일떠선 역사들을 돌아볼수록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불같은 마음이 낳은 창조물들이라는감이 느껴진다.

그 창조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모든 일에는 발기자가 있고 훌륭한 결실을 안아온 투쟁정신이 깃들어있기마련이다.

그 주인공은 다름아닌 오학봉려단장과 김철민동무를 비롯한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의 지휘관들이다. 그들은 철길건설의 첫시작부터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는 지휘관으로 소문을 내면서도 삼지연군에 흔한 부사로 마감건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바쳐왔다.

언제인가 있은 일이였다. 마감건재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해 필요한 설비들을 확보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협조밑에 생산의 첫 동음을 울리였지만 형타문제로 애를 먹고있었다. 결과 신심이 없어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그때 려단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백두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길을 끝까지 갈수 있고 불같은 애국심이 발현되며 지방건재를 효과있게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관철할수 있다.》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일떠섰다. 그들은 수십차례의 실패에도 물러서지 않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끝끝내 형타문제를 자체실정에 맞게 해결하였다.

결과 마감건재생산기지의 동음은 높이 울려퍼졌고 보온과 흡음효과, 습기조절은 물론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다양한 색갈과 모양의 마감건재들이 쾅쾅 생산되게 되였다.

허나 려단지휘관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당시 여러가지 색갈을 내는 건재의 주요원료는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다.

황색과 적색, 흰색의 부사를 비롯한 천연재료들로 색갈문제를 해결할 높은 목표를 제기한 려단의 지휘관들은 백두대지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이 더욱 높이 발휘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려단장은 불편한 몸상태에서도 수시로 마감건재생산기지를 찾았고 김철민동무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미지의 과학세계를 한치한치 점령해나갔다.

216사단의 책임일군들과 려단정치부의 일군들도 마감건재생산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하여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였고 이곳 생산기지에서는 최근 몇달동안에 4천여㎡의 벽장식건재와 수천개의 란주를 비롯한 마감건재들이 생산되여 여러 역사건설에 효과있게 리용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보람찬 투쟁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김철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불같은 애국의 마음이 오늘의 성과를 안아왔습니다.》

날로 변모되는 새 모습

백두산종합박물관 골조공사 완공

백두산종합박물관골조공사가 완공되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연건축면적이 1만 수천㎡인 이 박물관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백두산의 력사, 자연에 대한 지식을 주는 거점이다.

백두산종합박물관 력사 및 자연부문의 건축을 맡은 618건설려단 자강도련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올해 겨울에 수만㎥의 방대한 굴착공사를 진행한데 이어 콩크리트치기를 다그쳐 끝냈다.

련대에서는 타입물이 얼지 않게 보온덧집을 짓고 혼합물다짐과 블로크생산을 다그쳤다. 강계시, 희천시, 만포시, 전천, 성강, 장강, 화평, 위원군대대를 비롯한 모든 대대들에서는 전투조직을 짜고들어 섬멸전의 방법으로 건설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자강도당위원회에서는 당초급선전일군들로 조직된 돌격대를, 618건설려단에서는 각 련대들에서 선발한 기능공들을 현지에 급파하였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연공들은 지붕트라스작업을 손색없이 해제끼였다.

그리하여 골조공사가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량강도련대가 맡은 백두산종합박물관 혁명사적부문의 골조공사도 동시에 마무리되였다.

온실건설이 끝났다

삼지연군에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이 일떠섰다.

고산지대에 아담하고 특색있게 건설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은 백두의 천연수림과 어울려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성, 중앙기관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기초파기와 벽체쌓기, 층막치기, 지붕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분발해나선 청년돌격대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힘찬 돌격전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성, 중앙기관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은 불과 6개월 남짓한 기간에 그처럼 방대한 온실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건설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

북부철길청년돌격대 평안남도련대 권영수동무는 공사조직을 실속있게 짜고드는 일군으로 소문이 났다.

그는 공사에 앞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기 위하여 늘 사색하고있다. 련대가 맡은 공사에서 다른 단위들보다 일자리를 내고있는데는 그의 피타는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남포시련대 김문철동무는 기술공정에 밝은 지휘관으로 기술혁신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원형트라스조립방법을 새롭게 받아들인것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1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련대의 공사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한몫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평안북도련대 리문남동무는 돌격대원들의 친부모, 맏형으로 불리우고있다.

치렬한 전투를 벌리는 돌격대원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애쓰는 그의 노력에 의해 설계되고 일떠선 남새온실과 축사에서 나오는 부식물들은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618건설려단 자강도련대 리은혁동무는 소문난 혁신자이다.

그는 매일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 수행하면서 기술혁신성과로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기술공정에 박식한 그는 련대의 보배, 모든 일을 막힘없이 해제끼는 돌격대원으로 불리우고있다.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철도성련대 김봉섭동무는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대오의 기수이다.

단천철도분국 광천철길대에서 달려온 그는 하루작업과제의 2배이상을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아 교대후에도 일손을 놓지 않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권영수동무

김문철동무

리문남동무

리은혁동무

김봉섭동무

방법이 참신할수록 실효가 크다

함경북도도시설계연구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어느 단위에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조국의 래일을 도면우에 그려가는 설계부문에서 이 사업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함경북도도시설계연구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설계가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초급당위원회가 애국주의교양에 힘을 넣게 된 계기가 있다.

몇해전 한 대상에 대한 기술설계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당조직에서는 이 사업을 행정실무적인 문제로 대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깊이 돌리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설계가들이 시공자, 운영자들과 충분한 토의가 없이 도면을 그리였고 결국 여러번 반복설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에서 초급당위원회는 설계가들의 애국심을 분출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큰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교훈을 찾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원리적으로 진행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과 기초, 그를 구현하기 위한 과업 등을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든 직관물들을 사무실들과 공공장소들에 게시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체득하게 하였다.

특히 김정일애국주의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설계가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하였다.

지난 3월 백두산건축연구원을 찾으시여 설계가들은 미술을 잘하여야 한다고, 오늘 우리 당은 설계가들이 애국적인 미술가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모든 설계실들에 정중히 모시고 설계가들이 설계도면에 찍는 점 하나, 긋는 선 하나에도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문명, 인민의 리상과 꿈을 그대로 담을줄 아는 애국적인 미술가가 되도록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지난 4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구소의 설계가들이 작성하여 올린 함경북도양로원내부설계안을 지도하여주시였을 때에도 김진희초급당위원장은 설계가들속에 들어가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연구소와 우리 설계가들을 알고계신다, 더 훌륭한 설계를 만들어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하면서 모든 설계가들이 당중앙의 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또한 설계실들의 사명과 특성에 맞게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시설설계실에서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문답식학습경연이 진행될 때였다. 초급당위원장은 상하수도망과 전기배선망 등에 대한 설계를 맡아하는 실의 사명에 맞게 김정일애국주의의 바탕으로 되는 숭고한 인민관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지도를 짜고들었다. 경연을 계기로 설계가들은 건축물의 외부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형성하였다고 하여도 상하수도체계와 전기배선체계 등이 정확히 세워지지 않으면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된다는것을 잘 알고 인민관이 훌륭히 구현된 설계도면을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가 혁명사적설계실에서는 혁명적수령관에 대한 학습을, 도시계획설계실에서는 숭고한 조국관에 대한 학습을 더욱 심화시키도록 한것은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이 실천과 접목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한 설계가들의 뜨거운 충정과 열정에 의하여 왕재산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들이 더욱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많은 공장들과 살림집들이 특색있게 일떠서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전개하였다.

우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훌륭한 건축형성안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을 초급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도록 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설계형성안들에 대한 합평, 심의 등 여러 공정들에 소장, 기술부소장을 비롯한 행정실무일군들만 참가하였었다. 초급당위원장은 이 모임들에 스스로 참가하여 설계형성안 작성을 당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지난해 연구소에서 작성한 어느 한 중요대상의 건축설계형성안에 대한 국가설계총국심의를 진행할 때였다. 초급당위원장은 설계가들과 함께 평양에 올라와 심의에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축미학사상이 반영되고 도의 특성이 살아나게 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자면 당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주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때에 대책을 세우게 되였다. 초급당위원장이 설계가들과 함께 백두산건축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중앙설계기관들을 돌아보며 시야를 넓히고 오랜 설계가들과 토론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훌륭한 설계형성안이 작성되게 되였다.

청진육아원, 애육원설계에 이어 청진초등학원, 중등학원설계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될수 있은것은 초급당위원회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설계가들의 심장속에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천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한 결과이다.

초급당위원회는 또한 자기 단위, 자기 일터를 알뜰히 꾸리고 관리하는 과정에 설계가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김정일애국주의가 높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얼마전 김경진소장이 연구소건물의 낡은 기와를 색철판으로 교체할 의견을 제기하였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이 전문건설기업소의 방조를 받자고 하였으나 초급당위원장은 연구소자체로 할 결심을 굳히였다.

일군들부터 지붕에 올라가 공사를 지휘하였고 설계가들도 연구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수천㎡의 지붕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가들은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뜨겁게 간직하게 되였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이 실천과 결부되여 참신하게 진행될 때 높은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이곳 당조직의 사업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작업조별경쟁을 걸고

상원군 흑우농장 제3작업반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낟알털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공정별로력조직과 공정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여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들은 벼단운반과 낟알털기를 하는 매 공정에 필요한 로력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작업조를 정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고있다. 특히 분조별, 작업조별 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벌려 단위시간동안에 최대의 능률을 낼수 있게 하고있다.

분조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작업조별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포전에서 운반된 낟알이 신속히 계량처리되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자각안고 분발해나선 농업근로자들은 벼단운반과 낟알털기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이들은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여 나라의 쌀독에 가득 채우려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맡겨진 전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실적이 높아갈수록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즉시 적절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그리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귀중한 낟알이 허실되지 않도록 하고있다.

작업반에서는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일반화하고있다.

뜻깊은 올해의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려는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는 가운데 작업반에서의 낟알털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리영학

더 많은 편직물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함흥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첨단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지식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

나라의 정보화실현의 앞장에 선 실력가집단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정보기술연구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선도자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진행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２０１７》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정보기술연구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１０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되였다.

련이어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게 된 이곳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성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한다.

연구소에 대한 취재과정에 우리는 전국의 모든 정보기술기업들이 이들처럼 창조적으로 일해나갈 때 현대화, 정보화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를수 있다는것을 확신할수 있었다.

품질관리의 과학화를 실현

누구나 정보기술연구소에 와보면 생산관리체계가 독특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있다. 이것은 연구소에서 개발한 쏘프트웨어생산관리종합체계의 도입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해당 부문 일군의 말에 의하면 어느 정보기술기업이나 이 생산관리종합체계를 도입하면 우수한 정보기술기업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다고 한다.

이 체계의 특징은 우선 연구사들의 하루작업과제량을 명백히 한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어떤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연구력량과 개발기간을 적당하게 정하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과제가 언제 끝나겠는지도 그리고 연구사들의 하루작업량도 알수 없었다. 이로 하여 연구사들의 연구개발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발휘될수 없었으며 사업의욕도 높아질수 없었다.

결과 연구개발사업에서는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성과를 달성할수 없었다. 이것은 쏘프트웨어제품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단위들에서는 하나의 약점으로 되였다.

하지만 쏘프트웨어생산관리종합체계의 도입으로 지금은 해당 연구과제수행에 필요한 공수와 시간이 과학적인 타산밑에 일별, 주별, 월별로 명백히 제시되기때문에 연구사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하루작업량에 대하여 명백한 책임을 지게 되였다. 과제를 수행하면 해당 책임자와 공정검사원들이 과제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그 질을 정확히 평가하고있다. 하여 연구사들의 연구개발능력은 크게 향상되였으며 과학적인 품질관리체계가 확립되여 생산제품의 질도 높아지게 되였다.

여기서 좋은 점으로 찾아보게 되는것은 또한 연구사들의 하루로력일평가를 사회주의경쟁속에서 진행해나가고있는것이다. 연구사들의 실적에 대한 자료는 경쟁항목에 밝혀진 세부사항의 집행정형자료와 함께 종합되며 이렇게 평가된 경쟁등수는 매일 홈페지에 그대로 현시된다.

이러한 경쟁열의가 곧 생산실적에로 이어졌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하여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리익을 가져다주었다. 쏘프트웨어생산관리종합체계는 １０대최우수정보기술제품으로 등록되였다.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

정보기술연구소의 자랑은 쏘프트웨어제품생산에서만 전국의 앞장에 서있는것이 아니다.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많은 연구사들이 실천가형의 인재들로 자라난것도 큰 자랑이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을 크나큰 감격과 격정속에 받아안던 그날 박두호소장은 지난 기간의 사업을 깊은 자책속에 돌이켜보았다.

사실 연구소에서는 쏘프트웨어생산단위로 전환된 다음부터 생산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연구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연구사들이 프로그람개발밖에는 다른 과학연구사업에 낯을 돌리지 않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은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선도자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어떻게 하나 우리 연구소가 학술형인재, 실천형인재들을 키워내는데서도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

그의 결심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여 처음으로 시작한것이 교육사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프로그람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였다.

즉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교육을 현대화할수 있는 프로그람을 개발도입한 성과도 이 나날에 이룩되였다.

연구소에서는 과학연구사업의 질적수준을 높여 연구사들을 학술형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올해에만도 세계적인 핵심기술들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연구사업과정에 집필한 16건의 소론문들중 여러건이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에 발표된 사실만 보아도 이곳 연구소가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며 나가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 과정에 연구소에서 핵심으로 틀어쥔 기술들은 많다.

다매체전송기술, 정보보안기술, 음향정보처리기술, 화상검색기술…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드높은 열의에 받들려 정보기술연구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큰걸음을 내짚게 되였으며 실천형의 정보기술인재양성체계도 확립되게 되였다.

이룩된 성과도 크지만 연구소에서 내세우고 있는 목표들도 간단치 않다.

하나하나가 다 세계적수준의 큼직큼직한 첨단기술과제들이지만 이들은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에 넘쳐있다.

가까운 앞날에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의 대학으로 만드는데 자신들의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갈 맹세로 가슴 불태우는 이곳 연구소의 박두호소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지향과 탐구의 열매는 과학기술강국건설의 든든한 밑거름으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 현

호평받는 첨단정보기술제품들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에서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첨단과학기술성과로 단호히 짓부셔버릴 각오밑에 우리 식 프로그람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훌륭한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이며 우리 나라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입니다.》

뜻깊은 올해를 첨단과학연구성과로 빛내일 일념을 안고 송억철소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국가적으로 의의가 큰 정보기술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대담하게 달라붙었다.

전국적범위에서 쏘프트웨어제품들의 류통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휘를 보장하며 저작권보호를 강화해줄수 있는 쏘프트웨어제품보급 및 보호체계를 개발한다는것은 헐치 않은 과제였다.

자료기지관리기술, 암호화기술, 서명기술, 체계관리운영기술 등 각이한 기술들이 통일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를 짧은 기간에 개발하여야 하는것으로 하여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들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체계개발에 자신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갔다.

응용프로그람개발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우리 식 조작체계에서 대용량자료들을 신속정확히 봉사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아 자료기지관리에서 제기되던 기술적난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정보보안연구집단의 과학자들도 정보보안의 믿음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우리 식의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도입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제품개발에서 제기되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하여 성능이 좋은 우리 식의 쏘프트웨어제품보급 및 보호체계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발하고 전국에 도입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연구소에서는 올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준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전반적１２년제의무교육에 이바지할수 있는 실리있고 우월한 프로그람들도 개발하였다.

특히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제１중학교학생들의 자체학습과 교원들의 학습지도에 도움을 주는 실력평가프로그람 《최우등생의 벗》은 리용자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하다.

여러가지 실리있는 복합문제류형들을 제안하고 필답시험방식에 보다 더 접근시켜 학생들의 실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수 있는것을 비롯하여 우수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람은 전국의 수많은 교육단위들에 보급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이밖에도 《학교교육평가체계》, 《대학생상식경연프로그람》, 《알아맞추기경연프로그람》 등 교육사업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프로그람들과 얼굴인식기술, 기계번역기술을 비롯하여 인공지능분야의 첨단기술 및 첨단정보기술제품들을 개발도입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나라의 정보화실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성과들을 이룩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는 올해에 진행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２０１７》에서 １０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되였다.

본사기자

개발창조형의 인재들로 준비시켜

국가과학원 지능정보연구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강국을 떠메고 나갈 과학기술인재대렬을 꾸리고 그들의 연구개발능력을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국가과학원 지능정보연구소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단위이지만 나라의 정보기술발전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실력가집단이다.

올해에 진행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２０１７》에 훌륭한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은 연구소는 １０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되였다.

10여년전 박영룡소장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만 하여도 이곳 연구소의 사업실적은 눈에 뜨이지 못하였다.

연구소의 실태를 파악하고난 소장의 심중은 몹시 무거웠다.

다음날부터 그는 퇴근길을 집으로가 아니라 어느 한 도서관으로 돌리였다.

하루사업을 끝마치고나서 밤깊도록 도서관에서 세계적인 정보기술의 발전추세를 연구하자니 힘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현실성있는 연구종자를 찾아내는 길이 곧 연구소가 일떠서는 길이라고 확신하였기에 피타는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6개월간에 걸치는 고심어린 노력끝에 찾아낸것이 바로 쌍방향원격영상회의체계기술에 대한 연구과제였다.

한번에 수백수천명을 대상하여 영상대화를 실시간적으로 봉사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그 의의는 대단히 컸고 이 기술만 정복하여도 연구소는 정보화실현에서 큰 몫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도 생소한 길, 개발사업의 성과여부를 장담할수 없는 길이여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소장은 머리를 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첨단기술개발인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처럼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우린 영원히 시대밖으로 밀려날것입니다.》

그의 불같은 호소는 연구사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이 길이 단순히 첨단기술개발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책동을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하는 길임을 모두가 뼈에 새겨안았다.

하여 마침내 첨단기술의 하나인 쌍방향원격영상회의체계기술을 완전히 우리 식으로 개발하고야 말았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사들의 개발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이 과정에 연구소에 도입된것이 1번수제였다.

정보기술분야는 실력있는 개발집단들사이의 분과 초를 다투는 경쟁마당인것만큼 연구과제를 책임진 1번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연구소에서는 해당 연구과제가 설정되면 시험을 쳐서 그 분야에 제일 정통한 연구사를 1번수로 정하였다. 이렇게 되니 연구사들속에서는 자연히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바람이 불게 되였다.

오늘 연구소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재능있는 인재들인 실장 부광진, 연구사 윤학성동무들도 이 과정에 자라난 실력가들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위하여 소문없이 큰일을 하고있는 실력가집단의 자랑중의 자랑은 몇개의 프로그람을 개발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다.

국가과학원 지능정보연구소는 집단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앞으로도 계속 지식경제시대의 앞장에서 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강철웅

집단주의위력이 안아온 알찬 열매

교육위원회 원격시험연구소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교육위원회 원격시험연구소에서 내놓은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 《탐구》가 １０대최우수정보기술제품으로 선정되였다.

대학입학생선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과학성을 담보할수 있는 우리 식의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의 확립은 자강력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세계가 보란듯이 힘차게 솟구쳐오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의의가 큰 첨단성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원격시험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를 전국적범위에로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특히 종전에 여러 대학들에서 실시하던 콤퓨터에 의한 입학시험체계를 실력본위의 원칙에서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입학생들을 선발할수 있는 국가의 통일적인 원격시험체계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환을 가져왔다.

김영수국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프로그람개발과 원격시험문제연구를 비롯한 연구사업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짜고들었으며 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서로의 지혜를 합쳐 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교육위원회적인 원격시험, 경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자면 교종별교육강령에 따르는 ７０여개의 학과목별문제자료기지의 구축과 시험문제자동출제기능, 여러 과목시험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기능, 과목별, 문제별특성에 맞는 과학적이고 고속화된 채점기능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은 참으로 방대하였다.

하지만 박사 장금란소장을 비롯한 원격시험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우리 식의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를 확립하는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만방에 빛내이는 길이라는것을 잘 알기에 사소한 주저나 동요도 없이 수년세월 연구사업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하나의 시험문제를 놓고서도 서로 다른 풀이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지혜를 합치며 사색의 낮과 밤을 이어왔고 시험문제의 요구에 따르는 프로그람을 개발하기 위해 콤퓨터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나날속에 이들은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에 필요한 수십만개나 되는 원격시험문제들을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었다.

교육위원회의 일군들과 원격시험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발휘한 집단주의위력의 알찬 열매인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 《탐구》에 대한 각지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다.

본사기자 강효심

락원기술교류사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참관자들로부터 커다란 호평을 받은 수자식액정텔레비존 《락원》이 이번에 진행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２０１７》에서 １０대최우수정보기술제품으로 평가되였다.

이 제품은 락원기술교류사에서 새롭게 제작한것이다.

이 단위에서는 지난해에 우수정보기술제품으로 평가되였던 수자식액정텔레비존 《락원》에 여러가지 기능들을 새롭게 추가하여 내놓음으로써 수십개 단위들에서 출품한 각이한 액정텔레비존들가운데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블루투스기능을 리용한 외부증폭기의 사용기능, 안테나의 수신감도를 높일수 있는 기능, 더 많은 외부장치와의 련결을 손쉽게 실현할수 있는 다중포구지원기능 등 사용에서의 편리성을 보장하여주는 특색있는 기능들로 하여 전람회기간 이 제품에 대한 인기는 대단하였다고 한다.

처음 수자식액정텔레비존제작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애로와 난관도 많았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단순한 제품제작으로만 보지 않았다.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자신들의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보았다.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들의 충고를 달게 여기며 인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창조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락원기술교류사무원 리경심동무와 기술자들이였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과 용기를 안겨준 당조직의 사심없는 방조속에 이들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여러가지 기능들을 겸한 수자식액정텔레비존 《락원》을 훌륭히 제작하게 되였으며 오늘과 같이 우승의 단상에 오를수 있었다.

결코 남보다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였다.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것을 지향하며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부단히 채찍질하며 뛰고 또 뛰려는 불같은 지향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오늘과 같은 성과를 안아온것이였다.

인민들의 요구를 가장 신성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인민들이 요구하는것이라면 그것이 설사 불가능한것이라도 무조건 끝까지 만들어내야 한다는 투철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닐 때만이 인민이 좋아하고 바라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만들수 있다는것을 락원기술교류사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0돐 기념행사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0돐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고 고향집뜨락에 들어선 그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빛나는 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기념행사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렬사릉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백절불굴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은 그들은 여러 호실들에 전시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면서 비범한 령도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혁명위업,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한없이 고결한 동지애의 세계를 깊이 체득하였다.

기념행사참가자들의 참관길은 선군총대의 고향인 평천혁명사적지에로 이어졌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적지에서 그들은 주체적인 병기공업의 탄생을 선언한 력사의 총성과 더불어 자립적국방공업의 초행길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았다.

기념행사참가자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참관하고 예술공연들을 관람하였으며 릉라곱등어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기념행사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선렬들의 혁명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따쓰통신사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세르게이 미하일로브 총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따쓰통신사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대표단성원들은 만경대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만경대에서의 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자연박물관 등을 참관하였으며 해방탑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농장의 보배

운전군 관해협동농장 편의분조에서 수리공으로 일하는 **김명세동무**는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혁신자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고장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그는 지난 ２０여년을 편의분조에서 일하면서 맡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는 감자가공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설비들을 창안제작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맡은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닌 그를 두고 사람들은 농장의 보배라고 정답게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은숙

영예군인가정의 륜리

신의주시 동상동 １５인민반 독고형애동무의 가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신의주시 동상동 １５인민반 독고형애동무의 가정은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다.

남다른것이 있다면 아들 김성진동무가 특류영예군인이라는것이다. 이 가정에는 남다른 륜리가 있다. 일을 해도 남보다 더 많이, 바쳐도 남보다 더 크게…

《영예군인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내세워주는 당의 사랑을 어떻게 앉아서 받기만 하겠습니까.》

바로 영예군인가정이기에 보답과 헌신의 길을 남먼저 걸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저 멀리 희천과 삼지연을 비롯한 조국땅 방방곡곡에 애국의 자욱을 새겨온 그들의 진정이야말로 얼마나 값높고 소중한것인가.

지금으로부터 여러해전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김성진동무가 뜻밖의 정황에서 전우들을 구원하고 특류영예군인이 되여 집으로 돌아온 날이였다. 아들을 한품에 와락 그러안으며 독고형애녀성은 뜨겁게 속삭였다.

《성진아, 내 아들아, 정말… 정말… 장하다!》

그후 날과 달이 흐를수록 아들에게 더해만지는 당의 은정과 집단의 사랑을 가슴뿌듯이 느낄 때마다 그는 깊어지는 생각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했을 때였다.

김성진동무에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결사전을 벌리고있는 군인들모두가 옛 전우들의 모습으로 안겨왔고 그럴수록 피끓는 그의 심장은 자기가 침상에서 창작한 시를 안고 들끓는 희천전역의 한복판에 뛰여들고싶은 열망으로 세차게 고동쳤다.

희천으로 가겠다는 아들의 결심을 듣고난 독고형애동무는 기쁨에 넘쳐 말했다.

《나도 함께 가겠다.》

희천의 격전장에서 김성진동무가 읊는 한편한편의 시는 그대로 병사들의 가슴속에 위훈과 혁신의 불을 지피였다.

그후 독고형애녀성은 아들의 몫까지 합쳐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썼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성진동무가 올린 결의편지를 몸소 보아주시였으며 희천발전소건설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신의주시에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충정을 바친 그에게 감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독고형애동무는 그 사랑, 그 은정에 보답할 일념으로 지원사업을 더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얼마전 김성진동무가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여 이제는 그만 쉬는것이 어떤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보답은 시작인데 나이가 많다고 이 길에서 물러설수는 없다. 한생을 다 바쳐도 갚지 못할 은정속에 우리가 살고있지 않니.》

누리는 행복이 클수록 보답도 커야 한다는 숭고한 륜리를 지니고 독고형애동무와 김성진동무는 오늘도 사회와 집단,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리남호

승냥이 미제는 우리 인민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

침략과 략탈의 대명사－미국

이 땅이 거대한 불도가니가 되여 무섭게 끓고있다. 분화구를 찾는 용암처럼 철천지원쑤 미제를 씨도 없이 박멸해버릴 의지가 천만군민의 피끓는 심장마다에 용솟음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이 발표된 후 단 며칠사이에 470여만명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100여만명의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했다.

감히 우리 국가의 절멸을 떠든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죽탕쳐버릴 멸적의 기상이 차넘치는 이 시각 그 격노한 민심에 붓을 적시며 평화의 파괴자, 인두겁을 쓴 야수인 미제의 만고죄악의 일단을 다시금 돌이켜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우리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악의 제국,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명사이다. 하다면 악의 제국 미국은 어떻게 생겨났던가.

콜럼부스의 신대륙발견과 더불어 아메리카대륙은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이 되였다. 북아메리카에 영국의 첫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을 세운 선조들중 대부분은 건달군들과 깡패들, 죄를 짓고 숨어살던 전과자들 등이였다.

놈들은 인디안들에 대한 살인과 략탈에 미쳐날뛰였다. 앵글로색손족의 이민들은 인디안들을 내쫓거나 멸족시키면서 그들의 령토를 강탈하였다. 침략자들은 《미개인은 떠나야 한다》, 《죽은 인디안만이 좋다》는 살인적인 구호밑에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죽이였다. 쫓겨가는 인디안들을 한사코 추격하여 쏘아죽이고 찔러죽이고 불태워죽였으며 짐승처럼 가죽을 벗겨죽이기도 하였다. 지어 어떤자들은 인디안의 가죽으로 면도칼을 가는 가죽을 만들었는가 하면 턱뼈를 잘라내여 《기념품》으로 자랑삼아 가지고다니기도 하였다.

아메리카대륙은 인디안들의 피바다에 잠기였고 앵글로색손족의 야만들은 그 피바다우에 식민지를 확대하면서 가증스러운 미국의 형체를 갖추어나갔다.

미국형성의 전력사를 놓고보아도 양키의 선조들은 인디안들의 생존권, 생활권을 강도적으로 빼앗은 범죄자들이였다.

미제는 이렇게 세상에 태여난 때로부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 살륙과 강도행위를 본업으로 삼아왔다.

하기에 미국의 력사가라는 사람까지도 《미국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람이다. …미국인의 폭력행위는 우발적인것이 아니라 미국의 과거력사에 그 원천을 가지고있다. …미국인들은 인디안을 죽이는데서 살인의 습성을 붙이기 시작하여 사람들을 마구 죽여왔다.》고 실토하였다.

미제의 살인마적기질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피에 주린 미제야수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쏘아죽이고 때려죽이고 생매장하고 불태워죽였으며 짐승도 낯을 붉힐 온갖 악독한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신천군 원암리 밤나무골의 사백어머니와 백둘어린이의 피타는 부르짖음을!

조국해방전쟁말기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는 《북조선에서 쓸어도 걸리는것이 없게》 하기 위해 《북조선의 78개 도시들을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죽이는 초토화작전을 벌리였다.

평양시에만도 인구수보다 더 많은 무려 수십만개의 폭탄을 떨구어 건물 한채 성한것 없는 페허로 만들었으며 전쟁 전기간 공화국북반부에 수십만의 폭탄을 쏟아붓는 무차별적인 폭격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1952년 1월초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수백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의 169개 지역에 연 804차례에 걸쳐 각종 세균탄을 투하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실로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살인귀들의 만행은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대규모적인 살인만행이였다.

흘러간 인류력사에는 인간백정들도 많았지만 미제와 같이 그렇게 잔악하고 야만적이며 야수적인 살인마들은 일찌기 없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말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장장 수십년동안 남조선을 타고앉아 우리 민족에게 불행을 강요한 미제의 죄악을 어찌 다 계산할수 있으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정전이후 오늘까지 60여년동안 벌려놓은 각이한 명칭의 북침전쟁연습은 공개된것만 하여도 1만 8 000여회!

우리는 이렇게 묻고싶다.

이 땅의 평화의 파괴자는 누구인가?

미국,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대답할것이다. 미국이야말로 당장 조선에서 손을 떼고 제 소굴로 돌아가야 할 침략자, 략탈자, 전쟁의 원흉이라고.

그렇다. 미제는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 전쟁의 원흉이다.

돌이켜보면 조선전쟁이후 1960년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1970년대 판문점사건과 그후 서해무장충돌사건 등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치닫아오르게 한 군사적도발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났다. 그것이 모두 새 전쟁을 일으켜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는 미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승냥이가 양이 될수 없듯이 인디안의 피바다우에 생겨났고 침략과 파괴, 인간도살로 길러진 미국의 본성은 언제 가도 변할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도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 수천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는것》, 공화국의 《완전파괴》…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의 망발을 놓고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야수들이 우리 조국강토에서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행에 대하여 기어이 피의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며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일

—력사에 남긴 죄악의 기록들—

백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며 갖은 악행을 저질러온 미제.

우리는 여기에 미제의 조선침략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죄악의 기록중 그 일부를 전한다.

미제의 첫 침략선 《셔먼》호

1866년 8월 정체불명의 배 한척이 대동강어구에 나타났다. 미제침략선 《셔먼》호였다. 당시 《셔먼》호가 우리 나라에 침입한 목적은 군함과 대포소리로 봉건통치배들을 위협하여 불평등조약을 강요함으로써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놓으려는데 있었다.

8월 27일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던 평양감영의 중군을 랍치한 놈들은 파렴치하게도 쌀 1 000섬과 다량의 금, 은, 인삼 등을 내놓으면 중군을 석방하겠다고 떠벌였다. 저들의 강도적인 요구가 거절당하게 되자 놈들은 양키족속의 본성그대로 대동강을 오르내리는 각종 배들을 습격, 략탈하고 대동강변의 주민지대에 총포사격을 마구 들이대여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을 선두로 한 평양성인민들은 정의의 항전에 떨쳐나 오만무례하게 날뛰며 략탈행위를 감행하던 미제의 첫 침략선 《셔먼》호를 대동강에 수장해버리였다.

국권강탈을 노린 무덤도굴행위

침략선 《셔먼》호가 격침된 후 교활한 미제는 우리 인민들이 대대로 조상을 몹시 숭배한다는것을 알고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파헤쳐 유해를 훔쳐낸 다음 그것을 내걸고 조선봉건정부와 불평등조약을 맺을 흉계를 꾸미였다.

미제는 침략선 《차이나》호에 8t급의 작은 발동선 《크레타》호를 달고 1868년 4월 또다시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다. 덕산군 구만포에 상륙한 놈들은 짜리로씨야군대로 가장하고 곧바로 관청을 들이쳐 무기를 빼앗은 다음 그길로 목적지인 덕산군 현내면 가야동에 도적고양이처럼 기여들어 무덤도굴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날강도들의 목적은 쉽게 이루어질수 없었다. 19일 새벽 그곳 인민들은 놈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호미와 괭이를 들고 집단적으로 항거해나섰다. 당황한 강도단은 야망을 이루지 못한채 황급히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불법무도한 강화도침공행위

남연군묘도굴사건이후에도 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행위를 계속 감행하였다.

미제날강도들은 1871년 4월(양력 6월) 기함 《콜로라도》호를 비롯한 5척의 군함에 수십문의 포와 1 200여명의 침략군무리들을 싣고 또다시 조선에 기여들었다. 날강도들은 조선봉건정부에 보내는 통고문에서 제놈들이 조선령해에 온 목적은 조선과 협상하자는데 있다고 하면서 《조약》이 체결되면 돌아가겠다고 수작질을 하였다. 그리고는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손돌목의 포대앞에 기여들어 각종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4월 23일 강화도남쪽 초지진에 침략의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놈들은 함포의 엄호하에 우리측 방어지점들을 점령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상륙 첫날부터 놈들은 조선군사들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쳤다. 조선군사들은 미친듯이 쏘아대는 적의 함포사격속에서도 집중포화를 들이대여 적의 함선들에 심대한 손상을 입혔으며 달려드는 적의 륙전대를 육박전으로 요정내였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제놈들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놈들은 황급히 군함들을 끌고 조선령해에서 도망치고말았다.

본사기자

수필

푸른 행성

지난 세기 60년대초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우주를 비행한 비행사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지구는 푸른 빛갈이였다!

그러나 사실 그 푸른 행성에 언제 한번 평온이 깃든적이 있었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있는 핵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입니다.》

오늘도 천백배의 복수를 부르는 명혼들의 피의 절규가 쟁쟁히 들려오는듯싶은 신천땅과 수산리에 서보라. 보통강기슭에 족쇄를 차고 매있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을 비롯하여 전후 우리의 령공에 불법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격추된 미제침략군 비행기들의 잔해와 사진자료들을 보라.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 피같이 타버리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졌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온 나라 강토를 뒤덮었던 침략의 검은구름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있다. 진정 지난 60여년세월 이 나라의 하늘에는 언제나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떠있었다. 다름아닌 인두겁을 쓴 흡혈귀－미제때문에.

우리 조국땅뿐이랴. 세계의 도처에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미제의 죄행이 새겨져있다. 미제는 지난 세기에는 웰남전쟁과 그레네이더, 빠나마에 대한 군사적침공 그리고 만전쟁, 발칸전쟁 등을 감행한데 이어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반테로전》의 구실밑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여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짓밟고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살륙하였으며 이 행성의 아름다움을 파괴하였다.

얼마나 따뜻하고 귀중한 추억들이 깃들어있는 삶의 보금자리들이 송두리채 날아나 재만 남았던가.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사랑하던 자식들의 싸늘해진 시신을 안고 피눈물을 흘리고흘렸던가.

지나온 력사는 승냥이 미제가 있는 한 이 행성이 평화롭고 아름다울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잊지 못한다.

지난 5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에 설치한 촬영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지구사진을 보시고 우리가 쏜 로케트에서 지구를 쭉 내려찍은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시던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우리의 핵과 탄도탄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것이고 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자부심이 어떤것인가가 그이의 말씀에 그대로 울리고있다.

이 땅의 평화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정의의 핵보검을 틀어쥔 우리 인민이다.

자식들의 밝은 앞날과 행복한 미래를 누구보다 뜨겁게 갈망하는 이 나라 인민들이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것이다.

이 행성에서 미국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이 행성이 더욱 밝고 아름다우려면 미제라는 썩은 오물이 영영 없어져야 한다.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순결한 인민의 손에 정의의 핵이 쥐여져있기에 이 행성은 영원히 아름다운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미제살인귀들의 야수적만행에 격분을 금치 못하며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다.
－함경북도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반드시 천백배로 복수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략탈, 인간살륙의 원흉으로서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쑤입니다.》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쑤 날강도 미제가 신성한 우리 조국땅에 침략의 첫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야수적학살만행은 고금동서에 류례없는것이다.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지난 19세기부터 미제살인귀들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야수적이고 잔인한 만행들을 수없이 감행하였다. 광산을 개발하다가 굴속에 묻힌 광부를 보고 《묻힌 사람은 아무래도 죽기마련이다.》고 하면서 도끼로 사정없이 내리쳐 팔을 자르고 죽게 내버려뒀는가 하면 기계에 휘감긴 청년을 뻔히 보면서 《기계를 세우면 조선사람 몇백명보다 더 비싼 황금을 손해본다.》고 뇌까리면서 그를 무참히 학살하였다.

아메리카양키들은 말그대로 야수의 무리, 인간백정들이였다.

1948년 4월 《제주도땅이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 《전섬에 휘발유를 붓고 모두 죽여도 좋다.》고 떠벌이면서 반미구국항쟁에 일떠선 4.3봉기참가자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칼로 찔러죽이고 목매달아죽이고 생매장해죽이는 방법으로 제주도주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7만여명을 무참히 학살하고 온 남녘땅을 인간도살장으로 만든 살인귀 미제.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살인귀들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피비린내나는 만행은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대규모적인 살인만행이였다.

《닥치는대로 죽이라. 설사 그대들앞에 나타난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고 할지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이것은 전쟁 첫 시기 살인장군 워커란 놈이 조선전선에 출동한 미군병사들에게 내린 인간살륙의 명령이였다.

그 살인명령에 따라 이 땅은 피로 물들여졌다. 로동당원이라고 죽이고 열성농민이라고 하여 죽이고 제땅에서 농사지어 나라에 애국미를 바쳤다고 하여 죽이고…

총으로 쏘아죽이는것도 모자라 목매달아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이고 배를 갈라죽이고 톱으로 머리를 켜죽이고…

로근리민간인대학살만행은 미제의 야수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산증거이다. 1950년 7월 미제의 살인악당들은 충청북도 영동군 로근리부근에서 민간인들을 철길우에 강제로 집결시키고 비행기들을 무전으로 호출하여 무차별폭격과 기총사격을 가하여 학살하였으며 이를 피해 다리밑에 들어간 사람들을 기관총으로 쏘아죽이였다.

프랑스의 한 신문은 《20세기의 최대의 만행은 미군이 조선에서 감행하였다.》고 썼으며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은 《미국이 림시로 점령하였던 지역들에서 감행한 대중적학살과 고문들은 히틀러나치스들이 림시로 강점하였던 유럽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랄하다.》고 폭로하였다.

전후에도 날강도 미제는 남녘땅에서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나물캐는 소녀를 《꿩》이라고 쏘아죽이고 송유관부근에서 놀고있던 3살 난 어린이를 《휘발유도적》이라고 쏴죽이었으며 나무하는 농부를 《노루》라고 쏴죽이고 《M－16》소총 성능시험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명의 주민들을 과녁으로 삼고 조준사격하여 학살한 사실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992년 미제침략군놈이 동두천기지촌에서 저지른 윤금이살해사건과 2002년의 신효순, 심미선학살사건은 패륜패덕과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진 아메리카양키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반인륜적범죄이다.

실로 우리 인민에 대한 날강도 미제의 학살만행은 력사에 류례없는것으로서 미국의 살인마적정체와 잔인성과 야만성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죄는 반드시 피로 씻어야 한다.

우리 인민은 백수십년전부터 삼천리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식인종무리들이 저지른 야수적만행을 두고두고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반드시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치곤

실화

아름다운 모습

파산군 읍지구에 군의 일잘하는 일군들과 혁신자들을 소개한 영예게시판이 있다. 군편의봉사관리소 초급당위원장 송휘는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얼마전에도 그앞에 멈춰서서 자기네 지배인사진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섰는데 곁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왔다.

《우리 농장에 미용사, 리발사들을 데리고 이동봉사를 나왔던 군편의봉사관리소 지배인도 있어.》

《정말! 그때처럼 우릴 보고 밝게 웃는것 같구만요.》

그날 어느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이 주고받던 말이 생각나 송휘는 사진속의 지배인을 다시 바라보았다. 복스럽게 동그스름한 얼굴이며 따뜻한 미소가 흘러나오는 어글어글한 눈…

리금숙지배인은 평시에도 늘 인상이 밝다. 그래서 송휘는 관리소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지배인과 같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대하라고 말하군 한다.

지배인의 밝은 모습속에 어떤 진정과 헌신이 담겨있는지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마도 그와 몇해째 함께 일해오는 초급당위원장일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편의봉사사업을 잘하여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고 증진시킬수 있습니다.》

어려워진 농촌에서 당사업을 하던 송휘가 군편의봉사관리소 초급당일군으로 임명되였다. 현지에 도착한 그를 40대의 녀성지배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군편의봉사관리소일을 료해하고나서 송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현행생산으로 드바쁜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에 비해 퍽 안온하리라고 생각하였던 편의봉사관리소에서 어벌이 큰 일판을 수다하게 벌려놓고 누구라없이 분주히 뛰고있었던것이다. 온덕원개건공사와 읍지구의 새 편의봉사망꾸리기, 협동농장들에 대한 리발 및 미용이동봉사와 군적으로 진행되는 살림집건설…

첫인상이 자못 부드러운 녀성지배인의 일욕심이 간단치 않다는 생각에 힘들지 않은가고 그가 물었을 때였다.

그한때 막내딸이 될가말가한 지배인은 마치 큰 오빠앞에 선 녀동생처럼 무람없이 활짝 웃었다. 그리고는 《힘이 듭니다. 편의봉사관리소 지배인일을 처음 맡았을 때 전 막 울고싶은 심정이였습니다.》라고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터놓는것이였다.

리금숙이 군편의봉사관리소 지배인으로 임명받은것은 그가 금방 마흔살 잡히던 해라고 한다.

다년간 돌격대생활도 하고 여러 단위에서도 일해보았으나 편의봉사일은 깜깜이였다. 하지만 당의 믿음과 기대앞에서 어찌 아는 일과 모르는 일,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가리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도슬러먹었지만 편의봉사관리소의 실태를 놓고서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볼품없는 관리소건물이며 설비와 조건들이 불비한 봉사기지들, 전기사정으로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있는 온덕원…

어떤 종업원들은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있었다.

그들을 찾아가 왜 일터에 나오지 않는가고 물었더니 출근해야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직장을 옮길 생각이라고 대답하는것이였다.

맥풀린 걸음으로 터벌터벌 돌아오는데 온덕원쪽에서 녀인들이 우르르 밀려오며 《온덕원에 가는 길이라면 걸음을 돌리라요. 오늘도 물이 없대요.》라고 손을 홰홰 내저었다.

그들의 꾸밈없는 말과 행동은 맵짠 회초리마냥 리금숙을 호되게 내리쳤다. 가슴이 얼얼했다. 하면서도 정신은 번쩍 들었다.

(편의봉사관리소 지배인인 내가 맥을 놓고 앉아있는것만큼 군안의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느낄것이 아닌가. 당에서 왜 우리가 하는 일에 편의라는 두 글자를 새겨주었겠는가.)

그 순간 그는 편의봉사자라는 부름의 무게를 사무치게 깨달았다.

전기사정이 긴장하면 줄짱을 박아 물을 퍼서라도 온덕원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군당위원회에서는 적극 지지하고 떠밀어주었다.

온덕원이 문을 활짝 열고 손님들을 반겨맞던 날 리금숙과 봉사자들은 처음으로 밝게 웃었다. 편의봉사자들이 늘 그렇게 웃으며 자기들을 반겨맞아주였으면 좋겠다고 한 그날의 손님들의 이야기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사는 지배인이였다.

부원 회창주는 새로 온 초급당위원장앞에서 관리소에서 새로 꾸린 역전공원이야기를 꺼냈다. 송휘는 다시금 놀랐다. 공원건설을 전문건설기업소도 아닌 편의봉사관리소의 힘으로 하였다니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다.

회창주는 자기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것이였다.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댔습니다. 건설사업소도 아닌 편의봉사관리소가 무슨 힘으로 공원을 건설하겠는가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배인동지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우리 힘으로 무조건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다듬게 되였습니다.》

사진판을 찾는 청춘남녀들로부터 우리 파산군에도 정각이랑 분수가 있는 공원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들은 다음부터 리금숙지배인은 군의 곳곳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다. 어디에 공원을 건설하면 좋을가. 이런 생각을 골똘히 하는 그의 눈에 여기저기 잡관목들이 되는대로 자라는 역앞의 번번한 공지가 비껴들었다.

《멋진 공원을 건설하면 역전의 환경과 풍경이 좋아져서 좋고 주민들이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어 좋으니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편의봉사활동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여 좋지요. 그러니 우리가 공원건설을 해야겠어요 안해야겠어요.》

어제날 돌격대원의 신심과 배짱이 불같이 살아올랐다. 그날음으로 지배인은 수도와 도소재지를 비롯한 여러 시들을 다니며 잘 꾸린 공원들의 모습을 수첩에 하나하나 그려넣었다. 그 그림들이 역전공원설계의 기초로 되였다.

《여기에는 합각지붕을 얹은 정각을 건설하고 저쪽에는 분수못을 파자요. 호랑이며 곰조각도 앉히고 처녀총각들이 좋아할 오작교도 세우자요.》라고 하며 매 작업반에 과제분담을 똑똑히 한 지배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원건설장을 떠나지 않았다. 삽이며 함마 등을 들고 김싸게 일을 제끼는 그를 따라 모든 종업원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섰다.

군편의봉사관리소 종업원들이 역앞에 공원을 새로 꾸린다는 소문이 읍지구에 파다하게 퍼졌을 때 많은 주민들이 영문을 몰라하였다.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현지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사연을 알게 된 주민들은 너도나도 기뻐했다.

사진판이며 청량음료점을 비롯한 여러 봉사건물들까지 갖춘 새 공원은 결혼식을 하는 청춘남녀들과 읍지구 주민들이 즐겨찾는 좋은 휴식터로 되였다.

역전공원에서 즐기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리금숙지배인의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가 떠날줄 몰랐다. 그것은 인민의 행복을 제손으로 마련하고 가꾸어가는 참된 봉사자, 창조자의 긍지높은 미소였다.

송휘초급당위원장은 그처럼 일욕심많고 열정적인 지배인과 함께 일하게 된것이 기뻤다. 하여 그의 일이라면 두말 않고 적극 도와나섰다.

지난해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가 시작되였을 때 관리소에서는 어린이리발관과 종합수리소를 비롯하여 편의봉사기지들을 새로 꾸리고 현대화하는 방대한 일을 또다시 벌려놓았다. 한편으로는 바다를 낀 고장의 지리적특성에 맞게 수산부업반도 새로 조직하였다.

그 많은 일감으로 하여 리금숙지배인은 끼니를 번질 때가 많았고 매일 잠도 몇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그러다나니 이미전부터 앓고있던 병이 도져 공사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지배인에게 송휘초급당위원장은 엄하게 말했다.

《병부터 고쳐야겠소. 여기일은 걱정말고 병원에 어서 가요.》

지배인이 중앙병원으로 떠난후 송휘초급당위원장은 많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며칠째 팽이돌듯 하였다. 밤이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나른해왔다.

(남자인 나도 힘든데 그는 지금껏 어떻게 견뎌냈을가.)

다음날 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 지배인을 될수록 병원에 오래 붙잡아두라고.

그런데 얼마 안있어 지배인이 공사장에 나타난것이 아닌가. 그것도 현대화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구입해가지고 돌아온것이였다.

《어쩌자고 이러오?》

송휘초급당위원장은 처음으로 성을 벌컥 내였다.

그래도 지배인은 여전히 웃는 얼굴이였다. 그러더니 오히려 온덕원의 보이라를 개건보수하고 고급미용실과 옷수리소도 새로 꾸리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는것이였다.

《좋소. 그럼 약속하기요. 지배인동무가 저녁에는 꼭 제시간에 퇴근한다는걸 말이요.》

그의 말에 리금숙은 그렇게 하겠다고 선선히 대답했다.

정말 저녁이면 그는 작업장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간것이 아니라 읍지구에 사는 특류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의 집을 찾아가군 하였다. 생활에 불편이 없는가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리발이며 미용이동봉사를 조직해주기도 하였다.

이 사실을 안 초급당위원장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지배인동무 정말 방법이 없구만.》

노여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에게 지배인은 말했다.

《주민들의 생활상불편을 덜어주는것이 저의 제일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쁜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그처럼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에도 파산군에는 편의봉사시설들이 또 늘어났다.

자기들이 사는 곳과 더 가까와진 가지가지의 수리소며 편의봉사기지들에서 봉사받으며 주민들은 편의봉사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금치 못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6월말 파산군편의봉사관리소에서 온덕원관리운영을 잘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있는 사실을 료해하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그 소식을 전해듣고 파산군의 일군들과 주민들이 제일처럼 기뻐하던 그 시각 리금숙지배인은 송휘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관리소일군들에게 이렇게 묻고있었다.

《우리 군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했으면 좋을가요?》

＊ ＊

인민들의 편의를 위한 일감을 찾아 끝없이 사색하고 불같이 헌신하는 봉사자의 모습, 그것이 우리 당과 조국이 사랑하고 인민이 기억하는 참된 복무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랴.

본사기자 허명숙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을 향하여 폭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비상한 전진속도와 드높은 기상에 질겁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국은 나라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들을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면서 반공화국제재압박의 분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는 한편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전개하면서 북침전쟁광기를 부리고있다. 미국의 늙다리광패 트럼프는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할 심산으로 유엔에서 가장 야만적인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을 련이어 조작해낸것으로도 모자라 얼마전에는 《력대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떠벌이면서 새로운 《대조선제재행정명령》이라는데 서명하였다. 한편 미제호전광들은 핵전략폭격기 《B-1B》편대를 조선반도에 뻔질나게 투입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가상한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다.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조선동해에 들이밀어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도 미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적극 맞장구를 치며 《제재와 압박의 강화》에 대해 련일 고아대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은 그야말로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원쑤들은 그 어떤 제재와 군사적위협공갈로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추호의 동요없이 국가핵무력완성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고야말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다.

우리 인민은 결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군사적위협이 두려워 납작 엎드리거나 자기의 선택을 저울질하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다. 우리는 만난시련을 이겨낼 결사의 각오를 안고 병진의 길에 나섰다.

수난많은 력사를 통하여 자기를 지켜줄 총대가 없는 망국노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참된 존엄이 어디에 있는가를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 인민이다. 제국주의의 횡포한 위협에 굴복하고 꿀발린 회유에 넘어간 나라와 민족들이 침략의 군화발에 짓밟히며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는 현실은 우리에게 국가전략에 따라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을 보유하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있다.

사상과 신념이 투철한 강자들은 그 누구도 당해낼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자주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는 원쑤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자립경제를 건설하고 우리의 국방공업을 개발창조형의 혁명공업으로 일떠세운 강위력한 힘의 원천이다.

오늘 주체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케트와 수소탄은 물론 전략잠수함탄도탄을 비롯하여 최첨단타격수단들을 그쯘히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자랑찬 현실은 적들의 그 어떤 제재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에도 끄떡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제재와 봉쇄의 그물을 촘촘히 늘이고 그 무슨 《금융제재의 효과》와 《돈줄차단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는 개나발을 줴치며 우리의 전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던 원쑤들은 창공을 헤가르며 련이어 우주에로 치솟는 주체무기들의 위용앞에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고있다. 허리띠를 조이며 천신만고하여온 우리는 오늘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이라는 승리의 봉우리를 눈앞에 두고있다.

적대세력들의 발악적도전이 제아무리 악랄해도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넘고 헤치며 쟁취한 값비싼 승리를 더 큰 승리에로 이어나갈 우리의 결심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원쑤들의 최후발악은 우리가 승리하고있다는 명백한 반증이며 적들의 책동이 악랄할수록 우리의 위력은 더욱 강해질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사상 류례없는 반공화국제재와 군사적압살책동에 매달리고있지만 우리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모진 광파를 이겨내며 최후승리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우리의 거세찬 진군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려는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의 분출이다.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잇고 살아온 단일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도 미제이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끊임없는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일삼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침략자도 미국이다.

감히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와 《절멸》까지 줴쳐대며 핵전쟁도발에 광분하는 미국의 늙다리전쟁미치광이의 히스테리적광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적개심과 대미결산의지를 더욱 폭발시키고있다. 이 땅 어디서나 미국이라는 악마의 제국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한다는 적노의 웨침이 폭탄처럼 터져나오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은 대화탁에 올려놓을 협상물이 아니며 그 무엇과 맞바꾸기 위한 흥정물도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우리 국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미국과의 총결사전을 위한 최강의 보검이다.

미국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며 이 길에서 끝장을 보고야말겠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오늘의 현실은 국가핵무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결심과 선택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여실히 확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주체탄, 통일탄들에 물리적인 장약만이 아닌 천만군민의 증오와 분노가 꽉 채워져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천만군민의 멸적의 기상과 의지는 그대로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주체무기들의 장쾌한 불줄기이며 국가핵무력완성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의 추동력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가 저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와 군사적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국가핵무력완성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제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불굴의 신념과 무궁무진한 자강력을 지닌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것이다.

은 정 철

인권범죄자들의 파렴치한 도발소동

남조선괴뢰들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또다시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괴뢰통일부는 《북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르는 《2017년도 집행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렸다. 여기에서 괴뢰들은 가소롭게도 그 무슨 《북인권증진》에 대해 떠들며 우리에 대한 극히 도발적인 내용들로 일관된 7가지 《핵심추진과제》라는것을 설정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것은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는 사태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제의 전쟁괴수 트럼프의 미치광이나발과 그에 따르는 내외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도발소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격화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괴뢰들이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북인권》나발을 불어대며 우리를 자극하고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 충분히 보장되고있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공인된 사실이다. 절세위인의 따뜻한 손길아래 이 땅우에 꽃펴나고있는 인민사랑의 가슴뜨거운 전설들은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이 모략적인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면서 도발에 열을 올리는것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괴뢰들은 미국의 개가 되어 북침핵전쟁책동과 반공화국제재에 미쳐날뛰다 못해 우리를 모해하고 해치기 위한 《인권》모략소동까지 벌림으로써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다.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핵소동과 함께 《인권》모략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는것은 동족압살을 위한 괴뢰통치배들의 상투적수법으로 되여왔다. 괴뢰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은 악명높은 《북인권법》이라는것이 조작되고 서울에 유엔《북인권사무소》가 둥지를 튼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에 최절정에 달하였다.

문제는 초불민심에 의해 등장한 현 남조선당국이 선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는것이다.

이번에 괴뢰통일부가 들고나온 《집행계획》이라는것은 박근혜《정권》의 대결미치광이들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기 직전인 올해 4월에 꾸며낸 《북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른것이다. 박근혜패당이 급기야 이런 불순한 동족대결각본을 꿍그려낸것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저들의 대결정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였다.

그런데 현 남조선당국은 선행《정권》시기에 작성된 반공화국《인권》모략각본을 고스란히 넘겨받고 그에 따라 《북인권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현 괴뢰집권세력이 《북인권》의 간판밑에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뛴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과 조금도 다를바없는 민족반역의 무리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괴뢰들은 남을 걸고들기 전에 제코나 닦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이 력대 괴뢰통치배들의 독재정치, 반인민적폭정에 의해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사람못살 인간생지옥으로 전락된지는 이미 오래다. 리명박, 박근혜《정권》시기 정보원과 괴뢰군 기무사령부를 비롯한 폭압기구들이 총발동되여 벌린 진보세력탄압소동은 초보적인 인권마저 짓그리 유린말살된 남조선의 처참한 실태를 낱낱이 폭로해주었다.

남조선의 험악한 인권실태는 지금도 다를바 없다. 미국의 핵전쟁괴물인 《싸드》배치에 항거해나선 주민들을 수천명의 경찰깡패들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사병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끔찍한 인권유린범죄를 서슴없이 일삼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운운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자들이 《대화》타령을 늘어놓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괴뢰들은 인민들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는 어리석은 개꿈을 꾸다가는 날벼락밖에 맞을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리 성 호

우 리 나 라 대 표

유엔의 기본사명과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 천명

우리 나라 대표가 10일 유엔총회 제72차회의 6위원회(법률) 회의에서 안건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보고서》에 관한 토의에 참가하여 유엔의 기본사명과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현시기 많은 나라들이 주장하는 다무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견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오늘날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유엔이 자기의 활동에서 유엔헌장이 규제한 유엔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는것이다.

유엔헌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유엔의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자기의 활동에서 주권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이와 함께 유엔헌장은 임의의 나라의 령토완정이나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힘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백히 하고있다.

세상에는 작은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으며 발전된 나라와 발전도상나라가 존재하지만 모든 나라들은 똑같이 평등하며 그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할수 없다는것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의 근본핵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철저히 유엔헌장이 제시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것이다.

유엔헌장 제24조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활동에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오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이 요구하는것과는 거리가 멀게 행동하면서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다.

그는 조선반도문제를 그 대표적실례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반세기이상 우리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해온 미국에 대해 언제 한번 문제시한적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강화조치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며 정의 아닌 《결의》들을 조작해왔다.

주권평등의 원칙을 례로 하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의 견지에서 보아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핵시험과 탄도미싸일발사, 위성발사는 문제시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만 문제시해야 할 국제법적근거는 없다.

바로 여기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안고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유엔이 유엔헌장에 배치되게 도용되여온 실례는 또한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문제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성원국들의 한결같은 총의에 따라 비법적인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하루빨리 해체하고 모든 미군무력을 철수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그때로부터 40년이 넘었지만 미국은 유엔총회결의를 리행하지 않고있으며 지금도 남조선주둔 미군은 유엔기발을 뻐젓이 내걸고 《유엔군》행세를 하고있다.

조선전쟁의 도발과 함께 미국이 조작한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이름만을 도용하였을뿐 임의의 유엔활동과 계획의 견지에서나 그에 대한 지휘통제와 유지관리의 견지에서나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기구 아닌 《기구》이다.

다시말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썼지만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유엔의 통제나 지휘를 받는 일이 전혀 없었으며 이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이미 비법적인 실체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놓았다.

그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진정으로 유엔헌장의 요구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더이상 미국의 일방주의에 의한 강권과 전횡의 롱락물로 되지 말아야 하며 철두철미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조선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재정치의 진면모를 드러낸 사건

남조선에서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 감행된 진보세력탄압과 관련한 특대형정치테로범죄가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가운데 괴뢰군 기무사령부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사건이 또다시 폭로되였다. 리명박역도가 정보원과 괴뢰군 싸이버사령부는 물론 기무사령부까지 동원하여 각 정치세력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행위를 일삼고 인터네트를 통해 여론조작범죄까지 감행한 사실이 공개된것이다.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괴뢰군 싸이버사령부의 전 사령관과 전 심리전단장의 대화록음자료를 보도하였는데 거기에 기무사령부가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증거자료들이 들어있다. 대화에서 괴뢰군 싸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은 인터네트를 통한 여론조작에 저들만이 아니라 기무사령부의 심리전단이 참가했으며 특히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대책회의에 싸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책임자들이 참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기무사 민간인해킹관련동향》이라는 리명박《정권》시기의 청와대문건도 괴뢰군 기무사령부의 민간인사찰과 관련된것이다. 문건에는 괴뢰군 기무사령부의 조선대학교 교수해킹사건이 언급되여있다. 또한 기무사령부의 일상적인 해킹은 전문수사관들이 하기때문에 발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조선대학교 교수해킹사건은 례외라는데 대해 씌여져있다.

그뿐이 아니다. 폭로된데 의하면 리명박《정권》시기 괴뢰군 기무사령부는 청와대의 지휘밑에 인터네트를 통해 요시찰명단에 오른 진보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비난공격을 감행하고 그들의 활동을 추적조사하였다. 그리고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투쟁이 고조될 때에는 250여명의 싸이버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설부대를 만들어 《정권》지지활동을 벌리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리명박역도가 《정권》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괴뢰군부의 싸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까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시키면서 사상 류례없는 독재정치, 폭압통치를 실시하였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 괴뢰군 기무사령부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사건이 새로 드러나면서 그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여론이 분분해지자 괴뢰군 기무사령부 패거리들은 문어 제다리 자르듯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법석 떠들어대고있다.

한편 괴뢰검찰당국은 당시 괴뢰국방부 장관이였던 김관진의 해외려행을 금지시키고 사건조사를 진행하고있다.

문제는 저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진상이 드러나자 급해맞은 리명박역도가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는가 하면 지어 보수《정권》시기 빚어진 온갖 적폐를 청산하려는 각계의 노력에 대해 《퇴행적시도》라고 헐뜯으며 《성공하지 못한다.》는 망발을 줴쳐댄것이다. 리명박역도의 이런 오만방자한 추태는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키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사법당국이 리명박역도와 군부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린했는가를 낱낱이 밝혀낼것을 요구하고있다. 한 언론은 싸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 책임자가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까지 한것이 드러난 조건에서 이 사건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기의 죄악을 가리우려고 발광하는 리명박역도의 망발에 대해 《적폐청산은 퇴행이라고 할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리명박《정권》은 《사찰정권》, 《공작정권》이라고 단죄하였다. 이 당 원내대표도 리명박의 집권시기에 있었던 정치개입사건들이 련일 폭로되고있다고 하면서 역도가 모르쇠로 일관할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범죄의 진상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박근혜에 이어 리명박에 대한 적폐청산이 시작되였다고 하면서 괴뢰역도가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들을 철저히 파헤치고 역도를 력사의 심판장에 기어이 끌어낼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괴뢰군 기무사령부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사건은 리명박역도야말로 반역《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말살하면서 파쑈폭압에 열을 올린 극악한 독재광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를 가로막고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철저히 짓밟은 괴뢰보수패당의 가증스러운 파쑈독재통치의 진면모는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

본사기자 김 철 남

괴뢰군부당국자의 북침전쟁준비책동 규탄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청년의렬단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참수작전》이라는 이름으로 9월 29일 국방부앞에서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는 괴뢰군부당국자를 규탄하는 항의운동을 벌렸다.

단체는 괴뢰국방부 장관이 《참수부대 창설》이니, 《핵잠수함 도입》이니 하며 북침전쟁을 위한 새로운 부대조작과 무기도입을 떠벌이고 미국에 핵무기를 구걸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미국이 예고도 없이 핵전략폭격기를 투입하고 본토의 무력을 남조선에 전개하여 침략전쟁연습을 감행할 때에는 말한마디 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전쟁도발망언을 할 때조차 침묵하면서도 군당국이 전쟁준비를 위한 부대창설과 무기도입만 거침없이 주장하고있다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단체는 미국의 핵무기배치를 떠들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국방부 장관을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국방부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을사오적》의 죄행과 다를바 없다고 단체는 항의하였다.

단체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은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국방부장관이 민심을 외면하고 계속 전쟁분위기를 고취한다면 항의운동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지에서 겨울을 맞게 된 남조선리재민들

3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강원도 강릉 등지의 리재민들이 여러달째 집이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있다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5월 6일 남조선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에서 일어난 산불이 순식간에 강릉, 경상북도 상주와 영덕 등지로 번져졌다. 나흘동안 계속된 산불로 수많은 면적의 산림이 재가 되고 수십동의 살림집이 불에 타 많은 주민들이 졸지에 모든것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하지만 그들은 괴뢰당국의 무관심으로 오늘까지도 거처할 집을 마련할수 없어 집합속에서 하루하루를 유지하고있다.

특히 늙은이들은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 되였다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는것조차 포기하였는가 하면 좁은 집합속에 자식들을 불러들일수 없다고 한탄하며 홀로 쓸쓸하게 지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더욱더 높아가는 반트럼프기운

유엔무대에서 우리 국가와 다른 나라들을 미친개처럼 헐뜯던 트럼프가 국내에서도 광태를 부리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지방도시들을 돌아다니던 트럼프가 갑자기 지난해 전미프로미국식축구련맹에 소속된 한 선수가 소수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여 국가연주때 무릎을 꿇은 사실을 걸고들면서 《그런 개자식을 경기장에서 당장 쫓아내고 해고하라.》, 《입 닥치고 경기를 하게 하라.》고 악담을 늘어놓았다.

지난해 8월 26일에 열린 경기에서 미국가가 연주될 때 그 선수는 일어서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었다. 그해 9월 1일 경기장에서도 국가가 연주될 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찰의 권력람용과 극심한 인종차별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그의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사이에 심한 론난이 벌어졌었다. 당시 공화당의 대통령후보로 있었던 트럼프는 그가 미국을 떠나 자기에게 맞는 나라를 찾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트럼프는 그때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선수를 향해 상스러운 말을 하였던것이다. 지어 트위터에 응원자들이 국가를 사랑하기때문에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항의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경기장에 가지 않고있다는 등 사실과 반대되는 글까지 올렸다.

체육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많은 선수들이 국가연주시 무릎꿇기를 하면서 트럼프에게 정면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련맹소속의 체육구락부들중 거의 절반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반트럼프기운을 고조시키고있다. 전미프로미국식축구련맹소속 어느 한 체육구락부의 책임자는 트럼프가 체육에 대한 리해가 부족하고 련맹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한편 미국전국롱구협회도 트럼프와 충돌하고있다.

협회소속의 한 롱구선수가 백악관의 초청을 거절하자 악에 받친 트럼프는 즉시 트위터에 그의 백악관초청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였다. 그러자 협회 회장은 《백악관초청취소는 가슴에 다는 명예훈장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며 트럼프가 보란듯이 선수를 지지해주었다.

롱구협회소속의 많은 선수들은 트럼프가 체육을 리용하여 나라를 분렬시키려 한다고 하면서 그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로골적으로 비난하고있다.

트럼프는 체육계와만 충돌하고있는것이 아니다. 언론들과도 계속 갈등을 빚어내고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CNN이라는 글자를 새긴 상대방을 들며 메치는 동영상을 올린적이 있다. CNN방송이 맞갖지 않은 보도들을 하였다고 하여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낸것이다. 언론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감의 표시였다.

그는 두명의 방송원들을 《지능이 낮은 정신병자》라는 말로 모욕하여 물의를 일으킨적도 있다. 공화당원이였던 한명의 방송원은 그에 반발하여 즉시 당을 탈당하고 《트럼프가 공화당을 망치고있다.》고 주장하며 반트럼프진영에 합세하였다.

제 비위에 맞지 않는 대상은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헐뜯고 모욕하는 트럼프를 반대해나서는 기운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9월말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트럼프는 그러지 않아도 기울어져가는 미국의 운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선거에 나서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들었다. 그 실현을 위해 무엇도 서슴지 않을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똑똑한 타산도 없는 허황한 망상에 불과한것이였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사회를 분렬시키고있다. 자국내의 체육계, 언론계 등 여러 분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들을 마구 내뱉으며 헐뜯고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것자체가 시궁창에 주저앉아 하늘에 비낀 무지개를 잡아보겠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이다.

미국은 빈부격차, 인종차별 등으로 하여 사회분렬이 매우 심한 나라이다. 트럼프는 이것을 더욱 격화시키면서 미국의 멸망을 촉진시키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검

사람잡이에 광분하는 서방의 깡패경찰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 제복입은 깡패들이 활개치며 사람잡이에 광분하고있다.

인권유린의 란무장인 미국에서 경찰들의 잔인성과 포악성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이 나라 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전한데 의하면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만도 경찰에 의해 약 1 350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월평균 130여명이 살해된것으로 된다. 특히 흑인사냥에서 《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지난 4월 중순 캘리포니아주의 쌔크라멘토우시에서 경찰이 무방비상태의 흑인청년에게 달려들어 다짜고짜 두들겨패는 만행을 감행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경찰은 흑인청년이 단속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기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해나섰지만 사건현장에서 한 주민이 찍은 동영상자료가 공개되는바람에 그의 진술이 새빨간 거짓말이였다는것이 폭로되였다.

영국의 런던시에서는 6월에 경찰들이 25살 난 흑인청년에게 모두매를 안겨 살해하였으며 7월에는 아무 죄도 없는 흑인남성이 경찰에게 매맞아 죽었다.

2월에는 프랑스의 빠리에서 적수공권의 한 흑인청년이 경찰의 곤봉에 얻어맞아 빈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해 카나다의 오타와에서는 37살 난 무고한 흑인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여 류치장에서 매맞은 여독으로 하여 숨을 거두었다.

서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은 부지기수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서방나라들에서 사법당국이 《정당방위》, 《공무집행중》이였다는 황당한 구실을 내걸고 경찰들의 흑인살해행위를 적극 비호두둔하는 현상이 만연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카나다의 사법당국들은 적수공권의 흑인들을 살해한 살인범들에게 무죄판결과 불기소처분을 줄줄이 내림으로써 경찰들을 흑인사냥에로 부추기고있다.

경찰들의 전횡으로 억울하게 생죽음을 당하는 흑인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있지만 살인죄로 피고석에 앉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경찰은 몇명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경찰들과 검찰, 재판소 등 사법기관들이 서로 결탁되여 그들의 범죄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묵인조장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경찰들의 야만적인 흑인살해행위와 살인범들을 두둔하는 사법당국의 처사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들이 서방나라들을 휩쓸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반인종주의시위에 떨쳐나선 분노한 군중들이 《미국의 사법제도는 일반대중을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찰을 위한것이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경찰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고통만 들씌우고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각계층 군중이 항의시위들에 참가하여 당국이 범죄를 감행한 경찰들을 엄격히 처벌할것과 경찰들이 저지른 해당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속히 진실을 밝힐것을 요구하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저들의 심각한 인권문제는 당반우에 올려놓고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법석 고아대며 《국제적압박》이요, 《고립》이요 하면서 가소롭게 놀아대고있다.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인종차별이 만연하는 서방세계에서 벌어지는 깡패경찰들의 반인륜적인 전횡과 인권유린행위는 오늘 광범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다.

미국과 일본의 위험한 군사적결탁강화책동

미국과 일본이 조선반도긴장격화의 막뒤에서 무기판매 및 구입에 열을 올리고있다. 4일 미국무성은 56기의 《AIM-120C-7》중거리공대공미싸일을 일본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무기판매계획에 따른것으로서 미싸일들외에도 무기지원장비, 예비 및 수리부분품들, 기술적지원봉사 등이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여론들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결탁강화책동이 지역정세를 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일본지방당국 《오스프레이》수송기의 비행중지 요구

일본 오끼나와현 부지사가 최근 주일미군수송기의 비행훈련을 묵인하는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하였다. 지난 9월 현에서 《오스프레이》수송기가 불시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사고가 일어날때마다 수송기비행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었지만 계속 무시되였다고 하면서 이를 묵인하는 일미당국의 처사에 격분을 표시하였다. 그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비행을 중지시킬것을 당국과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71161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방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